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내가 미래의 CEO다

목차

1. 인사말

인사말	5
영재기업인 교육의 시작	6

2. 10년의 발자취

10년의 역사	10
10년의 추억들	12
교육관 및 교육과정	16

3.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창업일기	22
창업 talk talk	37

4. 꿈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교육생 수기	44
학부모 수기	82

5. 교육원 이야기

교육 엿보기	90
선발 안내	93
교육원 만나기	94
언론보도	96



인사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업 인재의 조기발굴과 양성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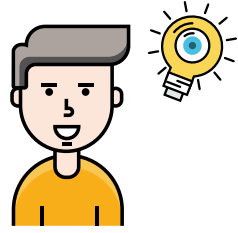
이에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 사업을 창출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특허청은 POSTEC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영재기업인교육원을 POSTECH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인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인 창업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POSTECH 교육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인재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CH 교육원은 2009년 설립 이후 창의적 영재기업인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차별화된 창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인 POSTECH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창업가,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예비 창업가인 교육생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교육원 및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고,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기집에는 젊은 학생들이 기업가로서의 꿈을 찾고 이를 이루어나가는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업가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꿈의 부재나 진로 선택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원은 앞으로도 창업 인재 교육과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원장 김광수



영재기업인 교육의 시작

2등 전략이 아닌 1등 전략이 필요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모방하는 Fast Follower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우리는 더 싸고 좋은 품질로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모두가 염원하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문제는 더는 모방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나가게 된 만큼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제치고 앞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개척해 나가는 First Mover로서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창업 인재 육성부터



Know-How를 가르쳐주는 곳은 많지만, Know-What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창업 지원 방안과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공모전, TV 프로그램 등의 이벤트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계획 뒤에는 결국 단기적인 성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질 자체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유능한 창업 인재를 육성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도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오직 교육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은 요원할 뿐입니다.

창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의 핵심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초, 중, 고 12년의 교육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다가 갑자기 학과를 결정하고 대학에 가는 아이들에게 창업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싹 틔워주는 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의 교육은 대부분 Know-How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Know-What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부재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노하우(Know-How)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창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교육사업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기술 기반의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는 “꿈을 찾아 드립니다,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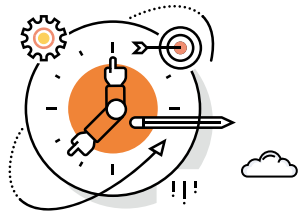
10년의 발자취



- ▶ 10년의 역사
- ▶ 10년의 추억들
- ▶ 교육관 및 교육과정

PCEO의 꿈은 계속된다!

‘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 10년



10년의 역사

2009

- 02/06 특허청-POSTECH MOU 체결
- 12/30 1기 교육생 선발

2010

- 01/27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개소식
- 01/27 - 29 1기 교육생 OT
- 04/10 - 11 POSTECH-KAIST 연합캠프
- 08/09 - 16 여름 오프라인 교육
- 10/23 - 24 POSTECH-KAIST 연합캠프
- 12/20 2기 교육생 선발



2011

- 01/05 - 07 2기 교육생 OT
- 01/07 - 14 겨울 오프라인 교육
- 08/01 - 15 여름 오프라인 교육
- 09/24 - 25 POSTECH-KAIST 연합캠프
- 12/15 3기 교육생 선발



2012

- 01/04 - 18 겨울 오프라인 교육
- 02/26 - 28 3기 교육생 OT
- 03/23 심화A과정 선발
- 06/09 - 10 차세대영재기업인 체험캠프
- 07/30 - 08/14 여름 오프라인 교육
- 08/31 - 09/02 특허청-중기청 연합교육
- 09/15 - 16 POSTECH-KAIST 연합캠프
- 12/01 - 02 GAIA포럼
- 12/20 4기 교육생 선발



2013

- 01/07 - 23 겨울 오프라인 교육
- 02/21 - 23 4기 교육생 OT
- 03/26 심화B과정 선발
- 06/21 대학1기 선발
- 07/29 - 08/14 여름 오프라인 교육
- 08/29 - 30 비즈쿨 연계 교육
- 09/06 - 08 특허청-중기청 실전창업교육
- 09/07 - 08 POSTECH-KAIST 연합캠프
- 10/26 - 11/10 글로벌 창업역량 연수(호주)
- 12/09 5기 교육생 선발



2014

- 01/06 - 22 겨울 오프라인 교육
- 02/15 - 16 5기 교육생 OT
- 04/04 심화A과정 선발
- 07/26 - 08/11 여름 오프라인 교육
- 09/13 - 14 POSTECH-KAIST 연합캠프
- 11/01 - 02 PCEO Festival
- 12/09 6기 교육생 선발



2015

- 01/03 - 20 겨울 오프라인 교육
- 02/07 - 02/08 6기 교육생 OT
- 04/17 사업개발과정 개편 (심화/대학과정 통합)
- 05/06 사업개발과정 선발
- 07/18 - 20 사업기회분석 프로젝트 모형화 개발 경상북도과학영재원 체험캠프
- 07/24 - 08/10 여름 오프라인 교육
- 09/05 - 06 POSTECH-KAIST 연합캠프
- 10/24 - 25 PCEO Festival
- 12/07 7기 교육생 선발

2016

- 01/08 - 15 겨울 오프라인 교육
- 02/20 - 21 7기 교육생 OT
- 04/13 사업개발과정 선발
- 04/09 - 10 경상북도과학영재원 초중등 체험캠프
- 07/18 - 20 미래상상 프로젝트 모형화 개발 경상북도과학영재원 고등 체험캠프
- 07/22 - 08/08 여름 오프라인 교육
- 09/03 - 04 POSTECH-KAIST 연합캠프
- 12/02 8기 교육생 선발



2017

- 01/04 - 20 겨울 오프라인 교육
- 02/18 - 19 8기 교육생 OT
- 04/01 - 02 경상북도과학영재원 초중등 체험캠프
- 07/29 - 08/07 여름 오프라인 교육
- 08/08 - 10 함안교육지원청 체험캠프
- 10/28 홈커밍데이
- 12/02 9기 교육생 선발



2018

- 01/8 - 24 겨울 오프라인 교육
- 02/24 9기 교육생 온라인 OT
- 04/07 홈커밍데이 및 신입생환영회



10년의 추억들



1~7기 단체 사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오프라인 집중교육 강의



오프라인 집중교육 발표



기업가 강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팀 프로젝트



오프라인 집중교육 팀활동



팀빌딩 프로그램



나노융합기술원 견학



교육원 페스티벌



글로벌 해외연수



로봇융합연구원 견학



햅틱스 및 가상현실 연구실 견학



기술탐험 강의



사업화 과정



경영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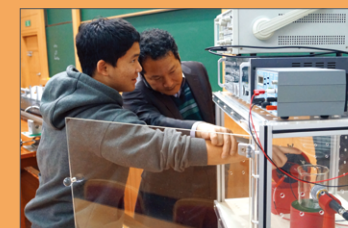
특허 교육



특허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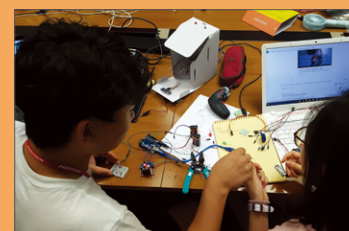
씨오부스(EQ프로그램)



물리실험실 견학



오프라인 집중교육 프로토타입제작



심화과정 IoT 실습교육



글로벌 인재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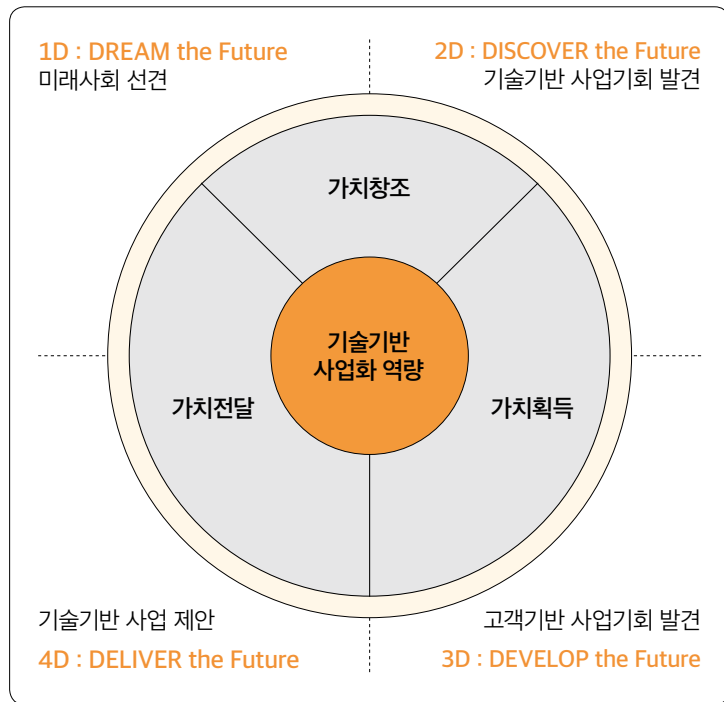


글로벌 인재포럼 교육생 강연



교육관 및 교육과정

본 교육원의 최종 교육목표는 기술기반 사업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획득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Dream the Future, Discover the Future, Develop the Future, Deliver the Future라는 4D 교육을 제공합니다. 본 교육은 창의성, 지식재산, 미래 선견, 기술 및 제품개발, 기업가정신 등의 주제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4D 교육은 기본, 심화 과정에 걸쳐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교육컨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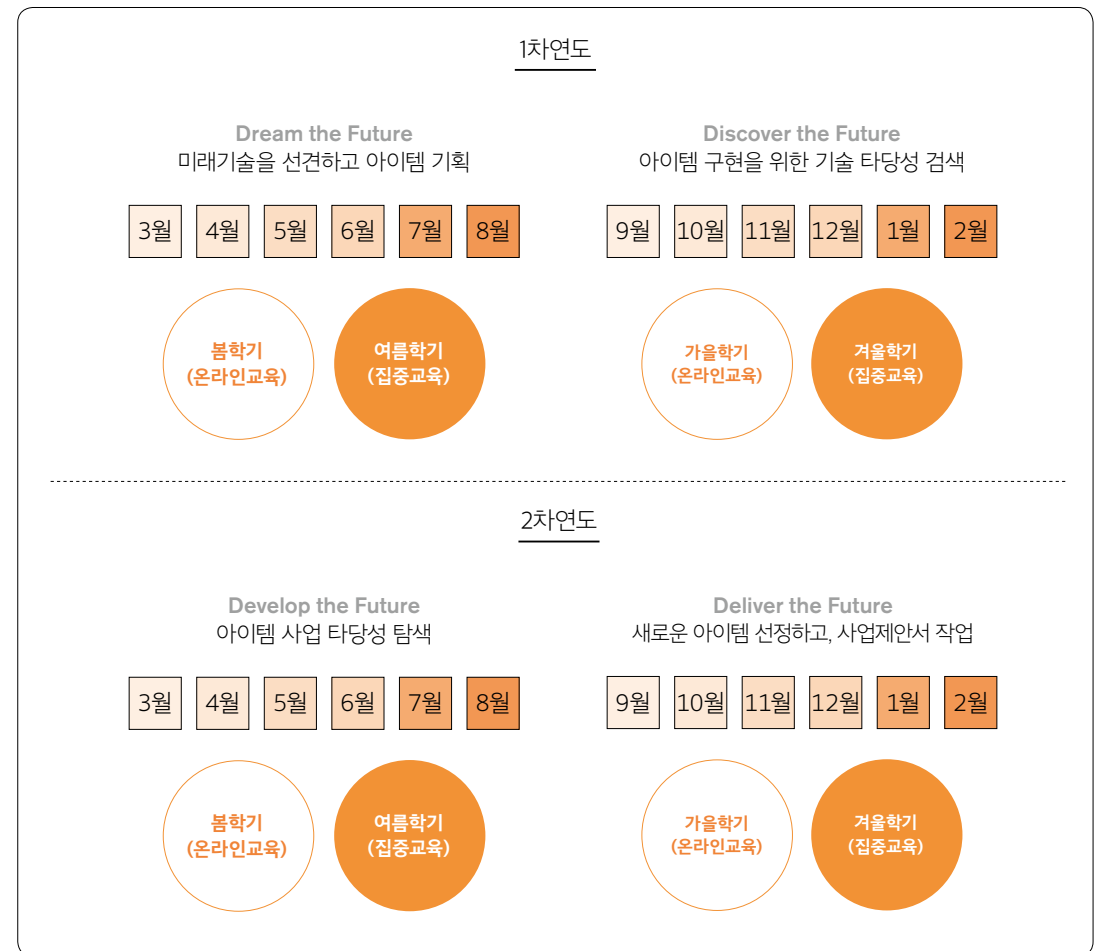
4D Educational Concept & PCEO Education Lifecycle

선발된 학생들은 기본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 이후 선택에 따라 심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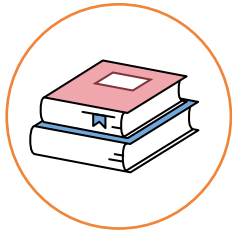
기본과정에서는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한 기술기반 기업인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미래 선견(Dream the Future), 기술기획(Discover the Future), 사업기획(Develop the Future), 사업제안(Deliver the Future)이라는 4개의 주제로 총 2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규학기(3~7월, 9~12월) 중에는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며, 방학(7~8월, 1~2월) 중에는 포스텍 캠퍼스에서 7박 8일간 오프라인 집중교육이 진행됩니다.

심화 과정은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 및 서비스 기반의 사업 기회 발굴을 통한 사업개발, 실질적인 사업 아이템 기획 및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POSTECH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수준 높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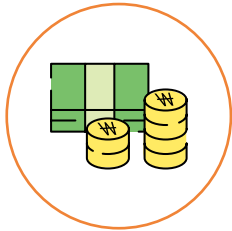


포스텍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는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포스텍의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해 강연을 하며, 학습과 진로에 관한 전문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시 포스텍의 다양한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 최초의 방사광 가속기인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나노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등의 연구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 내 연구실(LAB) 방문을 통해 교수 및 연구원의 멘토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실험 등을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및 강의실, 컨벤션 센터 등 재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포스텍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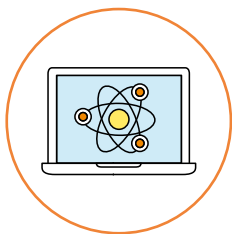
“교육비 전액 무료”



특허청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며 모든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단, 오프라인 교육 시 참가비(숙박료와 식비 등 부대비용)가 7박 8일 기준으로 약 30만원 정도 청구됩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여 오프라인 교육의 참가비를 면제하거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교육원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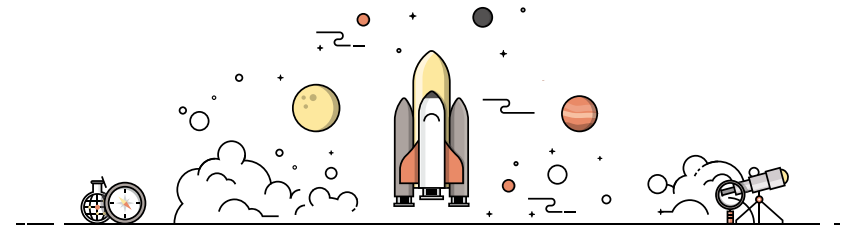
“교육생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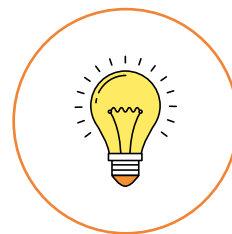
지금까지 400여 명의 교육생이 선발되어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대감이 깊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본 교육원의 교육생 네트워크는 향후 사업 파트너를 찾고 사업화 팀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생이 된 교육생들은 공모전 및 사업화 준비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생 관심분야

우주탐사, 대체 에너지, 환경오염 없는 사회, 경제 예술, 인공지능 로봇, 장기/질병 치료, 핵에너지, 광고, 로봇의 소형화/생활화, 디지털 디자인, 인공지능, 적정기술, 무선통신기술, 지식재산, 체감형 게임, 생체모방, 생체모방 로봇, 정보보호/보안, 뇌공학, 친환경 항공기, 우주항공 분야,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 워치, 인공강우, IT+패션, 질병 진단 및 분석기기, 스마트 기술과 유비쿼터스, 디스플레이 산업, 자동차&스마트폰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건강상태 분석기기, 식물줄기세포, BMI 기술, 수소 에너지, 의료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차 공학&센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입체 영상 게임, 스마트 그리드, 고기능의 전자 스케치북 및 전자 붓, 신약 개발, 유저인터페이스, 바이오 센서, 태양광 에너지



“명사 및 전문가 네트워크”



2년의 교육과정 동안 교육생들은 CEO,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명사 및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명사 및 전문가들과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꿈에 대해 조언을 받는 등 멘토-멘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 ▶ 창업일기
- ▶ 창업 talk talk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창업이라는 길에 뛰어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이라는 길에
한 발 내디딘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개척해 나간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업 일기

MiDAS Health & 모바일닥터

생각을 실천으로 행동하고, 도전의 두려움을 설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세윤입니다.
포스텍(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1기를 졸업했으며,
현재 모바일닥터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CTO를 맡고 있으며,
MiDAS 연구소 CEO를 맡고 있습니다.

(주)MiDAS Health와 (주)모바일닥터를 소개해주세요.

저는 2016년 9월 이후로 (주)MiDAS Health와 (주)모바일닥터라는 2개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MiDAS Health는 뛰어난 기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플랫폼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주로 연구하는 연구소 스타일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데이터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킬링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는 디바이스와 그 디바이스를 연동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POSTECH와 스타트업, 우수 병원들의 기술력과 니즈를 연결지어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이 디바이스가 구동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플렉서블 센서를 이용하여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이용한 욕창 방지 매트와 영유아 베이비 모니터링 속싸개를 제작 중입니다. 저는 (주)MiDAS Health에서 CEO를 맡아 의사 선생님, 개발자와 함께 일하며, 경영과 기획에 전반적인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닥터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유아용 체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외로 활동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서비스 중 유아용 열관리 애플리케이션 '열나요'는 현재 약 46만 명의 부모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구글 플

레이스토어 출산/육아카테고리 1~5위). 저는 모바일닥터에서 CTO직을 맡아 경영에 참여함과 동시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열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체온계를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을 기획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나요?

2010년 POSTECH 영재기업인 교육원 1기로 입학하면서,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학에 진학하면서 각종 창업경진대회와 호주, 핀란드 등의 해외 창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실제 창업의 문턱을 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 2학기 POSTECH 신소재공학과와 '소재 공정 디자인' 과목을 수강하며 소아 체온 관리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며 지도와 멘토링을 받은 결과 2016년 3월 한국 바이오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2016년 5월 미래부 주관의 공공기술기반창업탐색팀으로 선정되어 창업 아이템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 7월, 30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학교와 KIC(Korea Innovation Center)의 컨소시엄 연수에 참여하여, 100명의 소비자를 직접 적극적으로 인터뷰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같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던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는 (주)모바일닥터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창업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모바일닥터에서 '열나요'를 같이 기획하고 개발함과 동시에 신소재공학과에서 배운 반도체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듀얼센서를 이용한 체온측정계'(웨어러블 체온계)를 직접 연구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열나요'를 통해 얻은 300만 건 정도의 소아 체온 및 증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행성 질병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iDAS Health의 경우 중간에 피봇팅(pivoting)이 된 사례입니다. '열나요'와 관련하여 POSTECH 컴퓨터공학 박사님들과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2016년 12월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MiDAS 연구소'를 창업하여 헬스케어 데이터의 의학적인 상관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런 경험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2018년 4월 (주)MiDAS Health로 법인 전환을 하며, 연구 중심의 기업에서 헬스케어 제품과 플랫폼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기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MiDAS Health의 경우 지난 5월부터 POSTECH 신소재공학과와 함께 헬스케어 매트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여 MVP 샘플을 제작 완료했으며,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를 얻어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이비 모니터링의 경우 현재 속싸개로 유명한 해외 기업과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소재 및 나노 기반 연구를 하는 다수의 기술을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협의 중입니다.

모바일닥터의 '열나요'는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2017년도 대비 15만 이상 다운로드가 증가했습니다(2017년 30만, 2018년 5월 46만). 사용자가 더욱 많아진 만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8년 6월 애플리케이션이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서비스와 연동시킬 수 있는 '열나요 체온계'를 완성했습니다. 완전히

플렉서블하며 NFC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인증이 곧 끝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인과 기업이 되기를 원하나요?

개인적인 비전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을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또한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항상 영재기업인교육원과 같은 특별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만큼, 제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게 들어오는 질문 중에, '나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 하지 못할까요?'와 같은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 분들을 위해 저도 경험을 공유하려 노력하고, 더 큰 사람이 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엔지니어이자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기업가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기술들을 세상에 적용하고 나누어 쓸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술개발만을 위한 공학자가 아닌, 기술의 양면성과 소외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 27개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그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숨결을 느끼고,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업을 선택했고, 제 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퍼트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만을 위한 공학자가 아닌, 기술의 양면성과 소외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특히 헬스케어파트에서 단순히 한 가지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재기업인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미래, 꿈과 같은 단어들은 많이 친숙합니다. 이 미래, 꿈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미래에 무엇이되고 싶니?'

‘네 꿈이 뭐니?’라고 묻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의 답은 직업들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직업 또는 어떤 형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우리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너는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니?’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직업이나 목표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어떤 고민을 통해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순탄했는지 여쭙어 보십니다. 사실 저 또한 대학에 진학한 시점에서 많은 친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목표를 향해서 큰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 제 진로를 고민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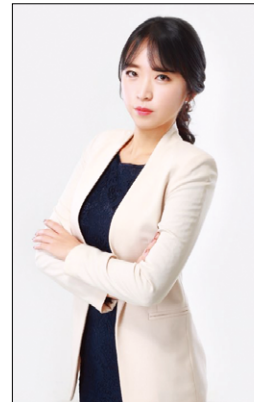
저는 좀 더 재밌게 살고 싶었고, 나만의 가치(Value)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창업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에 와서 살펴봤더니, 그 모든 과정 속 만난 사람들과 경험들이 제 꿈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전 세계에서 만나 많은 경험을 직,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제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방향이 모두 창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결정적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꿈과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을 링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느끼고, 자신의 꿈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완벽한 순간만을 찾고 기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순간들이 결정적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 삶의 많은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기업인 교육을 받는 우리 교육원 학생들과 후배들 모두 꿈을 향해 나아가며 '결정적인 순간'들을 연결하여 더 창의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D_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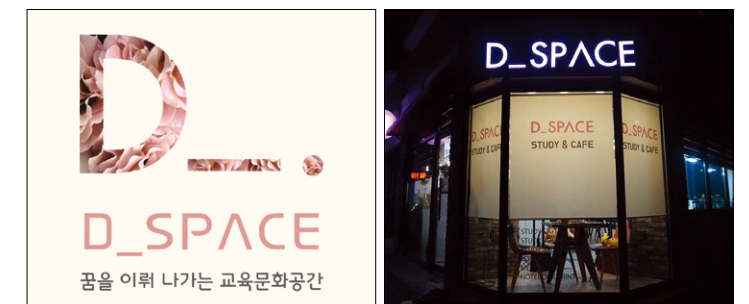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12년째 발명 인생을 살며 얼마 전 <인생발명 20> 책을 출간한 인생 발명가 김지혜입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1기를 수료했고, 현재 교육컨설팅 드림빈과 D_SPACE 교육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청년창업가입니다.

D_SPACE 소개해주세요.

D_SPACE(Dream Space)는 지역교육문화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프라인 교육문화공간 플랫폼으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통해 꿈을 이뤄나가는 교육공간입니다. 교육서비스와 교육공간의 융합으로 스터디, 교육매칭, 각종 교육서비스(진로진학/자소서/면접) 및 입시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지역별 “교육서비스와 교육공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첫 번째 교육문화공간입니다. 지역 발명 교육 활성화를 위해 창업한 17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경기도 교육청 지정 <발명스타트업> 꿈의 학교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나요?

영재기업인 1기를 수료한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 반드시 창업에 도전해보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마음이 좀 더 끌리는 쪽’을 선택하는 저는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오랫동안 그려온 창업의 꿈, 기업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이 하나둘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보였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 불안한 창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선택일까?”라는 생각에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창업 휴학을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의 우려 또한 많았는데, 학창시절부터 꿈꿔오던 창업의 길에 도전장조차 내보지 않는다면 훗날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입학과 동시에 교육 분야에서의 새로운 니즈를 발견하고 시작한 4년간의 드림빈 교육업을 통해 제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을 더 크게 보고 꿈꾸게 되어 이번 D_SPACE 창업을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저는 드림빈 교육을 진행하는 지난 4년간, 좋은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드림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생각과 각 지역에서 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한곳에 모아주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D_SPACE 창업을 결심하고는, 한 학기 동안 전공 수업을 모두 창업 실무 수업으로 선택해 수강하며 교수님들의 피드백 아래 D_SPACE 사업계획서를 완성해나갔고, 틈틈이 프리스타팅에 참여해 기업인들을 만나 세부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실전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담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기획이 중요한 창업인 만큼 공간을 사용하게 될 잠재적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도 돌려보고, 그 후엔 6개월 동안 인테리어 대표와의 끊임없는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발품 팔아 디자인적인 부분을 배워가며 D_SPACE 창업을 준비해나갔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 무지상태였던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 구상부터 4개월간의 공사 진행,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품 하나하나를 완성하기까지에는 정말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D_SPACE 창업의 꿈을 이뤄내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교육, 창업, 인테리어, 디자인, 홍보마케팅 공부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했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창업에 대한 간절함과 노력들이 하나둘 쌓이고 쌓여 이렇게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인과 기업이 되기 원하나요?

저는 12년간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발명’과 ‘교육’, 이 두 분야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성발명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D_SPACE의 비전에 맞게, 지역교육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시켜나갈 것이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발명, 그리고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인의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도전해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만 하지 말고, 도전해라!”입니다. 창업 멘토링을 진행하거나 영재기업인 후배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창업의 꿈이 있지만 리스크가 큰 분야라는 생각과 자금, 시기 등등 여러 문제를 나열하면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저 또한 창업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러한 문제들로 고민이 많았기에 매우 공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선배 입장에서 창업의 꿈이 있다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험상 시작하니까 피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이뤄지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많은 학생들 창업의 꿈을 향해 도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업을 하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 해보지 않고는 절대 느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창업 초창기에는 대표인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책임감과 끈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으로 청년창업에서 실패란 없다고 생각하기에 꼭 도전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창업하는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고, 훗날 되돌아봤을 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돈 왕창 벌어야지!” 하는 마인드로 시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창업 분야를 정할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D_SPACE를 만든 이유도 교육 분야를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창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알아주기까지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기간 큰 수익만을 바라고 창업을 시작하면, 금방 포기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작은 거창한 분야보단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아하는 분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영재기업이니깐! 영재기업인의 자부심을 갖고,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인의 꿈을 꼭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 나가는 영재기업인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발명 화이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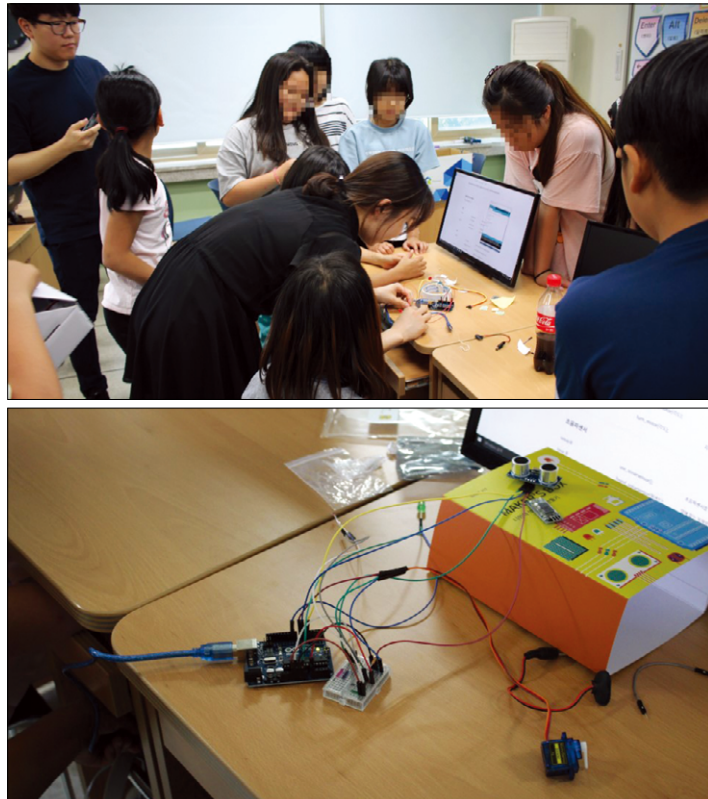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발명’과 ‘교육’

휴몬랩

휴몬랩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휴몬랩은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에듀테크 (Edu-tech) 회사입니다. hue(색)와 mone(공통체)를 합쳐 '우리의 색을 모두에게 물들이다.' 라는 뜻에서 휴몬랩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문화를 꿈꾸는 휴몬랩은 2017년 4월 법인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약 30개의 공공기관 및 학교에 우리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은 코딩 및 메이커스 교육을 보급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회사로서 자체 교육 소프트웨어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 구성원으로는 CEO인 저 1기 조현상 및 1기 오지현을 주축으로 디자이너, 개발자 총 4분과 함께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강남역 스터디 카페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총 3번의 보금자리를 변경하면서 지금의 휴몬랩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팀 빌딩에 많은 시간과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텨보자 마음속에서 팀원간의 믿음과 일에 대한 열정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지금의 저와 팀원 그리고 휴몬랩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 첫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에 학생과 선생님 연수와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많은 고객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니즈를 통해 회사의 확장 방향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중인 코딩 교육 관련 웹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서비스를 확장하여 휴몬랩만의 교육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코딩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지만, 메이커스와의 연계, 다른 과목과의 적용, 교사용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스타트업은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놀이나 취미 활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팀 빌딩이 가장 어려우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공동 창업자 또는 팀원을 구하게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 여부는 아이템이 아니라 그 스타트업을 함께 이끄는 공동 창업자/팀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수 조직인 만큼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팀원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세상엔 만능 엔터테인먼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나가거나 뒤처지는 팀원이 있으면 이끌어 주는 끈끈한 조직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성공이 보장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팀 빌딩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게 팀 빌딩이 된 만큼 허무하게 깨지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고객입니다.

처음 취업이 아닌 사업의 길로 선택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지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일어나는 실수는 대부분 내가 필요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서비스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제일 먼저 '고객'이 누구이며,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좋은 것입니다.

저도 어느새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일보다 고객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MY DEER

안녕하세요. MY DEER의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PCEO) 4기 강수지, 장유선입니다. 저희 팀에서 수지는 주로 프로젝트의 초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체 방향성을 정하는 역할 및 회의 진행이나 글을 쓰는 일도 함께하고 있죠. 유선은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기획자 수지와 함께 공장 등을 선택하고, 필요한 도면을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제작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디자이너로 소개받게 된 원희수님과 함께 기술의 한계와 디자인을 타협하며 제품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밖에도 중간중간 교육원 내 다른 친구들이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MY DEER 소개해주세요.

저희 팀은 2017년 6월에 결성되어 BAS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팀이 개편되며 MY DEER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마음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인드+아이디어 = '마이디어'라고 지었어요. 영어로는 MY DEER라고 표기하기로 했는데요, 사슴을 로고와 마스코트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유는요? 귀엽잖아요. MY DEER를 시작한 곳이 꽃사슴으로 유명한 '서울숲'이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나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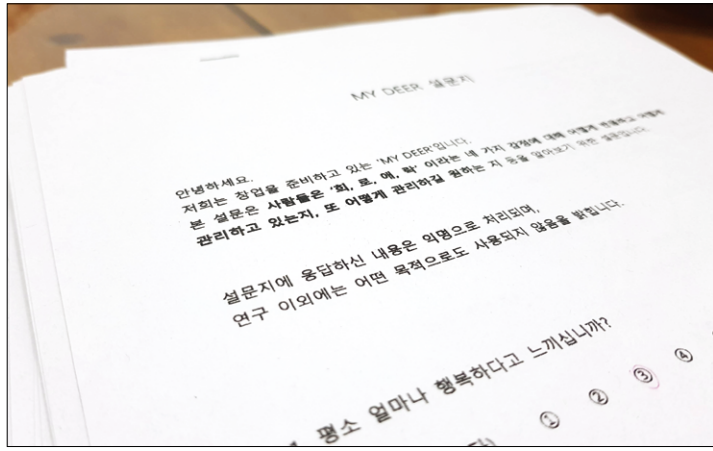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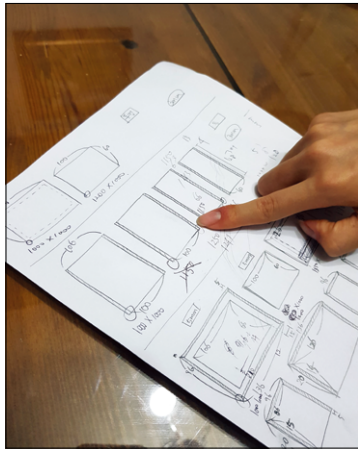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나요?

저희 팀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며 여름방학을 불태워 보자는 생각으로 모였어요. 각자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이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아이템을 꼭 사업화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일을 해보자" 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작한 저희 팀은 첫 아이템 'deefeed(디피드)'로 완벽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분명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는지 저희가 사업화를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진정성 없는 사업화였다는 거였어요. 3개월가량 끊임없이 회의를 반복하고, 전문 컨설턴트에게 컨설팅도 받아봤지만, 결론은 '버리자' 였습니다. 디피드는 팀원 각자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만큼 열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바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었거든요(사람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자). 비록 디피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변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각자의 역할 분배도 이루어졌고, 팀원이 빠져나가거나 새 팀원이 합류하기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무언가를 작게나마 시도하자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차근차근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 콘텐츠를 기획하여 배포하기도 했고, 2018년 1월 7, 8기 겨울 캠프 때는 교육생들이 힘든 마음을 종이 나뭇잎에 적으며 인식하고 떠나보내게 하는 '마음 나무: 내 마음을 돌아보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또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받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동물 농장'을 개발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작게 작게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면서, 뭔가 더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바로 <희로애락>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을 맡은 수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일기를 쓰면서, 늘 반복되는 것으로만 보이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와 행복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를 토대로 저희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욱 잘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 훈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기존의 마음 관리 훈련 방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기에 저희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적 요소를 가득 담아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구깃'입니다. 구깃의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해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종이에 적고, 찢고, 구겨서, 병에 모으면, 종이의 색감으로 특별한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깃의 시제품 제작 도입 직전, 사람들은 각 감정마다 각각 다른 인지 방식, 표현 방식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행복한 감정들은 최대한 많이 인지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또 내가 이만큼 행복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슬프거나 괴롭고 힘든 감정들은 잊고 싶어 하고, 또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제대로 된 표출을 통해 해소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감정을 '희, 로, 애, 락'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복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확인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 바로 구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맞추어 제품의 컨셉과 방향을 크게 수정하였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구깃”

이렇게 탄생한 MY DEER <희로애락>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행복을 찾아서, 구깃”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 저희는 사람들이 작은 행복들, 변화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돕고 나아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지난 4월, 신한은행 '디지털 라이프 스쿨'이라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1기에 합격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구깃을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답니다.

현재는 구깃의 시제품을 제작 중이에요. 저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소와 아크릴 공장과의 컨택이 필수적이었는데, 아크릴 공장은 마침 지인이 운영하고 계신 곳이 있어 원활하게 시작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인쇄소였습니다. 전국의 수 없이 많은 인쇄소에 연락을 해보았고, 인쇄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저희는 종종 무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쇄에 관한 공부도 해보고, 몇백 종류의 종이를 직접 찾아보고 만져보며 고민하

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디자인해보았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원하는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인쇄소를 컨택하게 되었고, 디자인과 내용 기획이 완료되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람의 삶은 밤하늘 같다고 생각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해 어두워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행복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구깃'을 통해 저희는 사람들에게 깜깜한 밤하늘 속 별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주는 망원경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궁금하시거나,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MY DEER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

어떤 기업인과 기업이 되기 원하나요?

저희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조금 더 솔직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편견과 차별 없이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해요. 어쩌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한다는 게 참 당연한 일인데, 억누르다 보니 그 감정들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화'에 관해서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의 첫 번째 프로젝트 '구깃'을 끝내고 나면, 저희는 '화'를 주제로 다음 프로젝트를 이어가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억누르고 있던 화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액션형 전시를 기획하고 있답니다. 화를 무조건 참지 말라는 의미로, '참치마요 화력발전'을 구상했어요. 여기서 화력은 물론 angry의 힘이었죠! 10월 중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첫 번째 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액션형 전시까지 이어질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직접 화를 표출하는 액션들을 통해 참치마요 카나페가 완성된다거나 참치마요 인형이 뽀히는 등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네요! 즐겁고, 유쾌하게.

이렇게 저희는 MY DEER가 당연한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창업에 도전하면서 물론 좋은 것만 겪고 싶었지만, 가만 되 돌아보니 저희를 더욱 성장시킨 건 오히려 힘들었던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

들었던 저희의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프로젝트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어요. 팀이란 '서로' 이끌어주며 성장하는 것인데, 저희 팀은 그 균형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 이끄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균형한 걸까, 하는 고민과 스트레스들. 그건 상대방의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더 큰 스트레스와 화가 있었어요. 사람과 일하는데 사람의 감정이 발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일이었죠. 일이 있기 전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일이라는 이유로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교육원에서 팀플할 때도 그렇잖아요. 팀원 한 명이 자꾸 실수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화가 나죠. 창업도 팀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하는 일들이니까요. 실수를 했다면 실수한 사람이 수습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겪어보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수습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면 불만이 더 커지죠. 무조건 남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타인과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창업이란 결국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공헌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도움을 받고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팀을 개편하고, 서로의 감정을 더 솔직하고 확실하게 잘 표출하다 보니, 프로젝트가 더 원활하고 즐겁게 진행되었어요. 좋은 성장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계속 익혀 나가는 중이고요. 또 서로의 감정을 잘 표출하고, 이해하며,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직 인간관계의 '인'자도 모르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민망하지만, 창업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모든 건 결국 사람이다"라는 한 마디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바라봐주세요.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도와야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MY DEER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또 그 행복은 저희의 행복이 될 거예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게요!

'서로' 도와야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창업 Talk Talk

창업이라는 꿈을 위해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 창업 특!특!입니다.



서현

5기 김서현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요,
창업 동아리 SURF의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르미'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모로 본격적인 창업에 다가가는 중입니다!



윤지

1기 김윤지입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휴학 후 플루토(Pluto)라는 스타트업 팀의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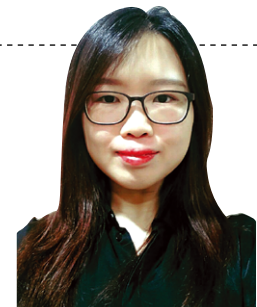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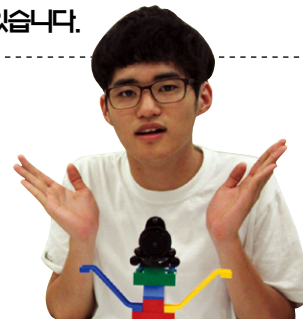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4인방을
소개합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한얼

2기 이한얼입니다.
현재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이며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에 대학원으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현재 TriFriend의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

1기 기민주입니다.
기술경영과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는 휴학하고 창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업(스타트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서현

심화과정까지 수료한 후 항상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발명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뜻이 맞는 친구들과 '창업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다재다능한 친구와 3D 프린팅 기술자 친구를 모았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는 상태였는데 1년간 진행하는 장기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에 출전하면서 '주르미'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한얼

저는 컴퓨터 전공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학교 선배가 저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시켰었는데, 그 덕분에 개발과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4학년 때 두 다리를 건너 개발자를 찾고 있는 TriFriend 팀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팀에 합류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

창업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하던 중, 교육원에서 진행한 캠프를 통해 알게 되었던 지인에게 함께 창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플루토 팀의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민주

어릴 때부터 CEO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때 애플을 보면서 기업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애플처럼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창업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아이템이 작년에 실현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었고, 대학생활이 끝나기 전 실현해보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서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작은 화장실이 되어주는 소변통, 주르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주르미라는 제품으로 JA COY 국내대회 최우수상을 타서 국제대회도 나가보고, I&D 최우수상도 받아보고,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하는 값진 경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르미의 금형 작업을 위해 자본금을 모으는 중입니다. <https://www.ycrowdy.com/r/surfkorea> 한번 방문해주세요.

윤지

플루토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기존 출판사의 구조적 지배에서 벗어난, 탈중앙화된 학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싸이냅스(Scinapse)라는 논문 검색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확장을 나갈 계획입니다. 팀에서 저는 기획자로 시스템 디자인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으나, 스타트업 특성상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담당 업무 외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한얼

TriFriend는 타지에 가게 된 방문자와 그곳에 사는 현지인이 공통적인 관심사를 기반으로 만나게끔 오프라인 매칭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저는 개발자로, 서버와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담당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주

반려동물 식품을 선별해 정기배송하는 그레이트박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건강한 사료를 찾고 싶을 때도 기업의 마케팅 또는 주관적 리뷰에 의존해 구매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레이트박스는 원재료, 영양성분, 제조시설 등의 정량적 정보와 브랜드의 가치관이라는 정성적 정보를 고려해 기준에 따라 식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서현

일단 특허 출원하고, 상표권도 출원하고, 입시가 끝난 후엔 사업자 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홍콩 측 시니어케어 바이어 분께서 주르미에 관심이 있다고 한번 만나 보고 싶다면 연락이 왔거든요. 계속 정진하고 싶습니다.

윤지

개인적으로 계획에 맞추어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팀에서 계획하는 2분기 OKR(Objective and Key Results) 목표 달성 후 복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얼

저는 다음 학기에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제 실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제 경우엔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며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특출난 친화력으로 금세 리더가 되는 친구, 날카롭게 문제점을 파악하는 친구 등등 저보다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저앉기보단 제 길에 집중하고 한 발씩 나아가면서 지금의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혹시 후배분들~ 오프라인 교육에서 너무 잘난 친구를 봐도 기죽지 마시고 마이웨이하세요! 그제 속 편하고 제일 이득 보는 길이랍니다. 다들 파이팅하세요!!

서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시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곳이 곧 교육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믿는 것을 더 자신 있게 표현하고 실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행복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윤지

교육원에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것은 편견을 버리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원을 다녔던 고등학생인 저도 그런 친구가,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깐요. 그런데 캠프가 끝나고 돌이켜봤을 때 제가 싫어했던 여러 모습은 제가 행동했던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행동이 제가 싫어하는 제 모습이었던 거죠. 교육원을 수료하고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생각나는 교육원 활동이 총들의 기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얼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할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진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꼭 실행해봤으면 합니다.

민주

민주

우선은 그라잇박스를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건강함이라는 모토를 잃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즐겁고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원의 활동이 창업(스타트업/꿈)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서현

그냥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이 교육원 활동에서 스노우볼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정하거나 발표를 하는 방식 등 굉장히 자잘한 부분에서 교육원에서 배운 게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꿈의 등불을 켜는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윤지

<꿈을 찾아드립니다, 꿈을 이루어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교육원을 통해 저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다방면에서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얼

교육원을 다니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교육원을 다녔었지만, 실제 창업에 참여해보니 교육원에서 배웠던 사고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의 여러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게끔 해주었고, 교육원에서 배웠던 여러 방법론은 제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교육원에서 학생/조교로서 여러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교육원 활동은 학교 수업이나 학교생활이 아닌 독특한 경험이었고, 생각의 관점을 제공해 주었던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민주

교육원에서의 활동은 CEO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유지하고 이 꿈을 창업이라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청년창업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고, 꿈꾸기에는 반대와 현실적 장벽이 많았습니다. 그런 창업을 막연하게 꿈꾸던 저에게 교육원은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을 꿈꾸도록 해주었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4

꿈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 ▶ 교육생 수기
- ▶ 학부모 수기

자신의 꿈을 찾으러 온 아이들의
가슴 설레는 이야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수기

글로벌 인재를 향한 터닝포인트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을 만난 건 내 청소년기 최대의 터닝 포인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교육원 1기에 선발되었을 당시 '발명'에 입문도 늦었고, 대외 활동에 참여도 많이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다른 교육원생보다 한 발 늦게 출발하였다. 하지만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차세대 영재기업인센터는 내게 많은 기회를 선물해 줬다. 차세대 영재기업인센터 한 마디로 얘기하면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제비 같은 존재일까? 행운처럼 찾아온 기회가 나에게 큰 행복과 깨달음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참석할 수 없는 글로벌 HR 포럼에 학생대표로 참석할 기회를 주었고, 여러 고민을 허심탄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위원 멘토님들 또한 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차세대 영재기업인센터 한 전문위원께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지 심리와 같은 개개인에 맞춘 상담의 중요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자란 각각의 교육원생들에게 맞춤형 카운셀링과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의 장을 약속해주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바로잡는 따뜻한 리더를 목표로!
나의 좌우명은 “I'll prove others wrong”(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이다. 짧게 말하면 “prove(입증)”.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내 이름처럼 동기를 유발하는 하나의 응원 메시지이다. 그렇기에 나는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들이 잘못되었음을 직접 증명하고 싶다. 어떠한 것을 증명할지는 아직 비밀! 새내기니까 그 비밀스러운 증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둘씩 세우고 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아직도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을 수료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으니 오프라인 집중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할 것만 같다. 그만큼 나의 학창시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름방학 3개월 동안 가장 먼저 2년간의 교육원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 신입생의 시선에서 내 미래 지도를 수정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CEO의 꿈을 품고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사람 중심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타인에게 희망을 주고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리더가 되고 싶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열심히 될 것이다.

끝으로 내가 현재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추진력은 바로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 덕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기에, 많은 학생이 소중한 기회를 함께했으면 좋겠다.

1기

이동기

UNIST 재학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 커뮤니케이터 위촉(2018)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2017)
BYND2015 Global Youth Summit

대한민국 청년 대표 선발(2015)

제8회 발명장학생 선발(2010)



노력과 도전의 계기를 준 곳

저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학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공부 조금 하는 애'라고 불리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니셔서 조금 자유로운 면은 있었지만요. 그 시점에서 저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은 저를 새로운 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원 지원서를 받아들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미래의 창조적 기술혁신을 주도할 차세대 기업인'이게 뭐냐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보니, 많은 활동을 교육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역었는지, 가능성을 보고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격하게 되어 교육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원을 통해 저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흔한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교육원에서의 시간은 제가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2년, 기본과정 과제 가운데, 소명 선언서와 IFR(Ideal Final Result)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도전할 것이며, 그 목표를 위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을 고민하며, 저는 어느덧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기술을 공부하고 싶다



1기

이후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재학 중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서포터즈 활동(2018)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스피커
기자단(2015)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술은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기술 커뮤니티 WAW(We Are the World)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WAW에서 저는 모두를 위한 기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발명품이 등장하지만, 이런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익성도 없고, 시장도 크지 않지만, 더 많은 인간을 위한 기술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행복했습니다. 한 명의 팀원으로,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드는 과정, 위기와 함께 찾아온 팀의 분열, 다시 하나의 팀을 만드는 어려운 시간. 이 모든 기억은 지금도 팀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온라인 조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운 교육원에서 다른 교육원생들도 더 많은 것을 얻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명이 된 지금에 만족합니다.

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 지식은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주는 경험과 함께하는 교육원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도전하고,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민과 도전의 계기가 된 기회에 감사합니다.

소명이 나를 바꾼다, 내가 미래를 바꾼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세계적 권위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남긴 말이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을 처음 듣고, 무척 공감하고 있었지만 내가 창조해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 몰랐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되겠다는 큰 꿈이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마음은 나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으로 이끌었다.

교육원은 무척 특별했다. 첫 번째 과제가 ‘소명 선언’이었다. 나의 흥미, 적성, 비전 등을 성찰하고 소명을 선언하는 과제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장래희망은 수단이란 것을 깨달았다. 교육부 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했다. 이 과제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 인가, 이것이 정말 내 가치관과 적성, 성격에 맞느냐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나의 꿈이 뚜렷한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은 ‘Develop the future’라는 테마로 공부하는 학기였다. 나는 미시/거시 환경 분석, 로드맵 작성 등 교육 과정을 통해 광고, 기획, 전략 수립, 마케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사하며 꿈을 구체화했다. 교육원에서 한 창의력 검사에서 내가 ‘정교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응용하고 그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내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마음속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온라인 교육 과제로 ‘스무 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책 속의 인물들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모습에 감동하였다. 그들이 도전하는 대상은 불확실했지만 마음가짐은 확실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는 것이고 내 최종 꿈에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마음가짐. 이 책을 읽고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통찰력, 믿음, 생각으로부터의 탈출, ‘이런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결

심과 동시에 내가 꿈을 찾고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알게 되었다.

교육원에서 했던 기업인 인터뷰를 통해 ‘내가 왜 경영을 하려고 하지?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교육부 장관이라는 꿈도 과학자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하고 싶어서 정한 것이고, 경영도 나의 전략과 기획으로 더 나은 브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양한 분야의 공부와 독서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즉, 나의 최종 지향점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경영인의 마인드로 끌어와 정교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내가 창조할 미래가 무엇인지 일찍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나의 미래를 펼쳐 나가는데 든든한 동기가 되어주고 있다.

수기를 쓰고 나니 교육원 홈페이지의 이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꿈을 찾아 드립니다.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2기

김수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서울대 Global Community Service Program(소셜임팩트 프로젝트 기획 프로그램) 세션 팀장(2018.01-)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 아이디어 공모전 소셜벤처 부문 장려상 수상(2017)

SKY+KAIST 연합 경영전략학회 활동(2016-2017): 광고플레이트(2016), KB 국민 저축은행(2017)와 기업연계 프로그램 진행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상,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항공 우주인을 향한 첫걸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어라.”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에서 나는 막연하게만 꿈꾸고 있던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관심분야인 항공우주분야를 더욱 깊이 공부하고 세부기술을 조사하는 방법을 배웠다.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기업가 정신 기르기’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관심 분야의 기업가를 인터뷰해야 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항공우주 분야는 대체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이기에 인터뷰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몇몇 대기업이 떠오를 뿐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일본에서 CAMUI Space Works를 설립하여 하이브리드 로켓을 개발하신 우에마쓰 전무님과 인터뷰에 성공하여 과제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우에마쓰 전무님은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분일 뿐 나와는 어떠한 인맥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나에게 훗카이도까지 찾아갈 시간적, 금전적 여유는 더욱이 없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검색을 통해 우에마쓰 전기의 홈페이지를 찾아내어 정중히 인터뷰 요청 이메일을 보냈다.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은 물론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평소 나는 자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To be’에 머무르지 말고 ‘To do’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가 인터뷰는 나에게 한 차원 높은 To do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시간, 공간, 돈, 인맥의 제약을 넘어서서 이루어낸 성과였기에, 인터뷰 경험은 나에게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갖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훌륭한 멘토를 만나게 해주었다. 또한 성공을 반신반의하며 도전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체험하며, 하고자 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했다. 내가 두드러지, 길이 열린 것이다.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활동은 영재기업인 자격으로 선발되어 CEO 포럼과 글로벌 인재포럼에 참석했던 것이다. 그곳에서 각 분야의 리더 분들을 뵙고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탁월한 리더 분들의 고견을 바로 눈앞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은 매 순간이 소중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분들을 본보기 삼아 나의 꿈에 끝까지 집중하며 더욱 열심히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원 과정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교육원에서 나와 같이 적정기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 WAW라는 적정기술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WAW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캠프를 통해 만나게 된 교수님의 도움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약에 미약하나마 작은 발걸음을 보태기 시작했다.

교육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현재까지 구체화한 나의 소명은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 진보에 일조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 과정에서 세상을 더 선하게 바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비행을 꿈꾼다.

2기

김수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전공 & 운항연계전공 재학 중

항공교통관계교육원 수료(2018)

제 1기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대학생 기자(201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TRAINAIR PLUS STP Aerodrome Inspector 과정 수료 (인천국제공항공사 Next Generation Aviation Professionals 프로그램)(2015)

VATSIM Korea Division 운영(2014)

월간항공(Aerospace & Defense) 독자위원(2013)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커뮤니티 Flight With Us 운영진(2010)

나는 영재기업인이다 (I'm PCEO!) 미래를 이끌어가는 희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2년 전 가졌던 의문이었다. 막연하게 ‘과학자’라는 꿈을 정해만 두었고, 꿈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오직 공부뿐이었다. 그나마도 이것이 꿈을 위한 노력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을 알게 되었다.

2년의 기본 과정 중 가장 기억나는 프로그램은 바로 창업 시뮬레이션이다. 난생처음으로 기업을 운영해보고 대출도 받아 보았다. 대출금으로 기업을 운영해서 투자 1위로 엄청난 수익을 낸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흐뭇하다. 덕분에 우리 기업은 우수 기업으로 거듭났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팀의 좋은 점은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다. 아이디어가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팀원들은 서로의 제안을 격려하고 믿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경험한 이번 집중교육의 백미였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팀만이 아니라 모든 영재기업인의 공통된 자세가 아닐까 싶다. 다른 이들이었으면 무시하거나 지나쳤을 말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존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제안하는 자세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우리들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구심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타인에게 강요하려 한다. 하지만 영재기업인은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며 책임을 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을 제안하고 다른 이들의 생각과 조율하고 보완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나는 영재기업인이다.

재미있는 점은 내가 교육원을 다니면서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의 숨은 능력을 찾은 것이다.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의 발표가 다른 친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줄은 미처 몰랐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뒤 친구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며 다가서는 모습에서 나의 숨겨진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평상시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알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나는 교육원에



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러한 재능을 찾고 개발한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원의 장점은 기업 경영, 혁신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 자신의 숨어 있는 재능을 찾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기회에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2년을 동고동락하며 기쁨과 고민을 함께했던 친구들(동생, 친구, 형, 누나 모두)과 헤어져 추억으로 회상해야 한다는 것이 왠지 모를 슬픔에 젖게 한다. 벌써 보고 싶다는 마음에 가슴이 찡하다. 모두 교육을 받을 때는 머리 아파했지만 정작 끝나고 나면 ‘다른 과제는 나오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은 것처럼 왠지 나는 친구들과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교육원을 수료하여 친구들과 다시 만날 기회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좋은 추억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어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간다.

교육원 덕분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긍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했던 미래를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원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집중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 모든 걸 견뎌낸 지금 나에게 남은 가장 큰 것은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소중한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

3기

강동현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재학 중

2D - 4D 오프라인 최우수
(2010, 2011)

특허출원 1건



지금의 나를 만든 곳

‘꿈을 찾아 드립니다,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의 캐치프레이즈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 캐치프레이즈는 말 그대로가 아닌 조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교육원을 알게 된 건 약 3년 전이었다. 그런데도 교육원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되지 않을 일 같다고, 혹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여 쉽게 포기해버린 탓이었다. 상상하고도 싶지 않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국 교육원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고 함께하게 된 교육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조금 독특했다. 기존의 영재교육원처럼 수학, 과학 교과 수업도, 과제도 없었고 오프라인캠프에서 수업해도 책상에 앉아 선생님만 바라보는 수업 같은 건 없었다. 게다가 오리엔테이션 이후 처음 받은 온라인 과제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제를 처음 받게 되었는데,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그저 이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닌, 이리이러한 이유로 과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서 과제를 정말 ‘하고 싶도록’ 만들었다. 그때 당시 제출했던 소명과 소명 로드맵은 아직도 나를 일깨워 주는 존재로 남아있다.

교육원의 장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교육도 있었지만, 교육원은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여름, 겨울 오프라인캠프에서 만나게 되는 3기 동기들 그리고 1, 2기 선배들, 4기 후배들, 그리고 교육원 학생들뿐

만 아니라 글로벌 HR포럼, 한림공학원 CEO포럼, 각종 세미나 등 여러 행사 참석을 지원해주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면의 나를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과 교육에 나는 교육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어두컴컴 하지만 했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원에 들어오기 전 그저 커서 내가 원하는 직업인 큐레이터가 되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나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고 관심 기술 분야도 생각해보며 미술과 기술의 융합,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나의 소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이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 나갈 것이다.

교육원의 캐치프레이즈 ‘꿈을 찾아드립니다, 꿈을 이루어드립니다’는 궁극적으로 ‘당신을 찾아드립니다, 진정한 당신을 이루어드립니다’가 되어 나에게 가장 특별한 문구가 되었다. 요새 나의 버킷 리스트에 한 가지 항목이 더 추가되었는데, 교육원에서 배우고 알아 가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학생이 지금 시기에 방향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학교, 나에게 교육원이라는 추억이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

3기

오승은

서강대학교 Art&Technology과
재학 중

빠흐띠 인턴 재직중(2018~)

Art&Technology Conference 2017
‘invoice’ 공간디자인(2017)

Art&Technology Conference 2016
‘당신의 하루는 환상으로 가득한가요’
큐레이터(2016)



투자 가치가 있는 인연입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인연이 바로 여기 있다고요. 듣기에 '인연'과 '투자'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다른 세계에 존재할 것 같은 단어를 조합한 이유는, 교육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내놓는 당연한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7박 8일의 캠프 4번, 오리엔테이션과 연합캠프, 커뮤니티의 오프라인 회의, 포럼, 페스티벌 등의 행사들, 이 밖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받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과의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마찰을 감당하면서, 또 저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교육원 활동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는 다양한 사업가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또한 경영 시뮬레이션을 통한 투자 유치를 진행해보면서, '투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아이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 믿음, 실력, 확실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의 투자의 이유는 '사람'이라는 가치였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하면서도 참 많이 다른 학생들 8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교육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조교 선생님들까지 평소 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인연들이 맺어졌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깊이가 깊어졌으며, 새로운 주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대화도 해보고, 같이 경험을 쌓아보고, 도전도 해보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점이 가장 커다란 가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캠프의 최종 발표가 끝난 날, 교육원에 들어오기 전과 현재를 비교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이 생각보다 빠르게, 큰 굴곡 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나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지?"라는 질문에 단숨에 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바뀐 건 많았습니다. '과학을 하겠어'라는 가장 커다란 길은 그대로지만,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생겼고, 의미 없이 걸어만 가고 있던 길의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장래희망과 꿈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전을 찾고 가치관을 찾는 일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데, 공교육 아래에서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연해야 하는데 당연하지 못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4기

강수지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재학 중
MY DEER 대표 : <희로애락>
프로젝트 진행

신한 디지털 라이프 스쿨 1기
적정기술 강연 및 교육봉사

쿠데타 문제집 기부 캠페인 진행

WAW 적정기술 및 사회적 기업
블로그 /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학이라는 과녁을 맞추기 위한 가짜 꿈이 아니라, 진짜 나의 꿈을 찾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던 것 이외의 분야들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들과 나의 관심 분야를 '융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관점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융합형 인재를 추구하는 시대인 만큼, 여러 기술 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캠프마다 핵심이 되었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며 조율하고, 발전시키고, 아이템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늘 어려웠습니다. 팀원들 간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또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헤맬 때마다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서로의 처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날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 밤샘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도 있었고, 아이템을 바꾸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때마다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각자의 지식과 능력을 살려 일을 분배하고 또 조합하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낸 뒤에는 커다란 기쁨과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커뮤니티 활동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이 완료된 지금도 커뮤니티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WAW라는 적정기술 커뮤니티에서 멤버들과 회의를 하고, 박람회와 대회 등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팀 프로젝트를 할 때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사실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회의 안건은 어떻게 정할지, 무엇을 준비할지, 어떤 것에 도전해볼지, 여러 번의 고민에 걸쳐 난감하기만 했던 회의가 점점 알차게 변해가면서, 매주 회의가 기다려졌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또한 혼자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어떤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 끝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고,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추가하면서 좋은 목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조금 격해지기도 하는) 활발한 의견 공유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프 기간 동안 강연을 들으면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사하면서 노트에 정리해둔 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곳에서 배운 지식, 만난 사람들이, 함께한 대화들이, 경험한 새로운 것들이, 또한 여러 도전, 끊임없는 실패와 성공들이, 접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기회들이.

어릴 적 바라던 허황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유토피아와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찾아가고,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걸음걸이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보폭이 넓어지고, 넘어지는 횟수도 줄어들며,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앞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인연입니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이어가도록 꾸준히 노력할 인연입니다. 기본과정 교육이 끝나면서 수 없이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엎는다=포기한다? 엎는다=새롭게 도전한다! 더욱 성장하기 위한 기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엎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만둔다', '망쳤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는 '엎는다'의 새로운 정의가 있다. 교육원의 교육을 받다 보면 개인 과제나 팀 프로젝트 수행 중에 주제를 자주 엎게 된다. 교육원에서 엎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체제 또는 질서 따위를 완전히 새로이 뒤바꾸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엎는다는 것은 곧 더 발전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다. 여러 번 진행되고 있던 일을 엎고 새로 시작하는 경험을 반복하며 느끼게 된 것은 이런 과정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점이다.

교육원에 지원할 때 별다른 관심 분야가 없었다. 자기소개서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작성 항목을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떠올린 것이 적정기술이었다. 솔직히 교육원에 지원하기 전까지 적정기술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1D, 2D 과제를 하면서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적정기술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때는 적정기술이 나의 관심 분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른 관심 분야를 찾아보려 하지 않고, 오직 '적정기술'만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들었다.

'나는 정말 적정기술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고민은 고등학교 입학 후 더 커져만 갔다. 나의 소명과 가치관을 적정기술이라는 주제에 맞춰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적정기술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나는 꿈을 이루게 하는 수단을 꿈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적정기술은 최종 꿈이 아닌 수단일 뿐이며, 수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기에 적정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답했었던 것이다.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주제를 여러 번 수정하면서 같은 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꿈을 찾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원의 1D 교육과정 중 가치관 정립, 흥미 및 적성 탐구, 소명을 찾는 과정은 그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도 나를 찾고, 꿈을 찾아 가는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진행하던 일을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교육원에 감사드린다.

4기

바수혜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재학 중

BASE 창업팀 활동

그린서포터즈 20기

쿠데따 교육불평등 해소 기부 프로젝트팀 기획 및 운영(2016)

공평한기회공모전 공기상 수상(2015)

환경기술 기반 적정기술 설계 프로젝트 참여

특허출원 1건



볼수록 매력 있고 알수록 신이 나는 나의 친구, 교육원을 소개합니다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보면 볼수록 더 예쁜 사람이 있다. 먹으면 먹을수록 질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나에게게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이 딱 그렇다. 닭살 돋는 애정표현이지만, 이것이 내 진심이다.

사실 처음에는 교육원의 특별한 교육들, 한 달마다 찾아오는 벅찬 과제들과 만만치 않은 탐구주제들이 낯설기만 했다. '그래도 조금은 놀 수 있겠지!' 하고 참석한 여름 집중교육 또한 내게 새로운 충격이었다. 일주일 안에 'function, 9windows, IFR' 와 같은 개념들을 학습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팀원들과 협업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생소한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집중교육에서의 날들이 하루, 하루 지나갈수록 교육원은 내게 감동을 주었다.

먼저 학생들을 위해 몸을 바쳐 애써주시는 조교 선생님들을 보고 감동하였다. 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조교 선생님들 덕분이었다. 칭찬과 솔직한 조언을 번갈아 가며, 나태해지려 할 때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주셨다. 또한,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다.



4기

조승연

포스텍 생명과학과 재학 중

저서 <소녀, 적정기술을 탐하다 (뜨인돌)>출간(2014)

CBS 강연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연 -'나는 적정한 기술로 논다!'(2014)

다수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정기술 및 비전 강연 진행(2014~)

한-핀란드 청소년 국가간 교류 한국 대표단 자격으로 핀란드를 방문해 교육 및 사회복지 현장 경험(2014)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적정기술 커뮤니티 'WAW' 활동(2013~)

특허 출원 1건



교육원에서 경험한 두 번째 감동은 나의 잠재력을 재발견했다는 것이다. 오직 프로젝트 과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다. 평소 한 가지에 집중을 잘 못 한다고 생각했고, 과정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나로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성장이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눈물과 좌절을 겪어가며, 어렵게 완성한 프로젝트를 칭찬받았던 그 순간은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했다.

세 번째 감동은 나의 관심 기술과 학과를 드디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의 꿈은 적정기술 공학 설계 디자이너였고, 적정기술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전문성을 과연 어느 분야에서 뽐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또한, 교육원에서는 2년 동안 하나의 관심 기술 분야를 깊게 탐구해야 했는데,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새 관심 기술 분야와 가고 싶은 과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작정하고 '나의 관심 분야를 정하자!' 하며 인터넷을 뒤져본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육원이 제시하는 과제와 탐구 주제, 조사할 자료들을 투덜거리면서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그 비결이었다. 이제 남은 1년 반 동안은 관심 분야에 집중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열혈 교육생이 되어야겠다.

교육원은 내게 새로운 사고법을 가르쳐 주었고, 관심 분야를 발견하도록 해 주었다. 또한, 내가 과연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도전할 힘을 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한계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얻은 것, 그리고 얻을 것

처음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을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과학 선생님께서 “이런 곳이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떨겠냐” 정도의 추천을 해 주신 뒤로부터였다. 어릴 때부터 자연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고, 꿈도 몇 년 동안이나 과학 연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일차원적인 관심에 교육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 이때 면접 때도 언급했던 “꿈을 찾아 드립니다,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교육원에서 소개한 “기술 기반의 기업인”에 마음이 가서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큰 기대는 없이 지원했었지만, 합격 후에 받은 2년여간의 기본과정 교육은 다양한 방면에서 나를 바꾸어 놓았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주었다.

첫째로,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과학 분야의 영재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왔었고, 합격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분야도 자연과학 분야였던지라 상당히 어릴 때부터 ‘과학자’라는 장래 희망을 확고하게 설정해 두었다. 하지만 교육원에서 제시하는 기술기반 기업인에 관해 점점 관심을 두게 되었고 현재는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자연과학 분야보다는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기업인이 되거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교육원의 온라인 과정에서는 공통인 주제로 각자 개인의 과제를,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같은 팀끼리 힘을 합쳐 팀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각자의 다양한 생각은 물론, 흥미가 있던 분야에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지식도 보충할 수 있었다. 또한 앞 기수 선배님들인 조교 선생님들, 기업이 강연을 하러 오신 실제 기업가분들을 통해 앞으로의 기술 동향이나 진로의 미래 전망을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마지막으로 평소 가보고 싶었던 포항가속기연구소나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견학이나,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었던 기술 탐험 시간은 다양한 기술 분야로 시야를 넓히는 데 유익했다.

5기

류형욱

경북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재학 중
PRIME사업단 글로벌SW역량강화
실리콘밸리 인턴십 선정(2018)
심화과정 해커톤/IOT 최우수(2018)
3D/ 4D 오프라인 최우수(2015,2016)



운 좋게도 2년 동안의 기본과정 교육이 끝나고 심화과정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교육원에서 얻어 간 것이 많지만, 심화과정에서도 더 유익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꿈을 확실히 정하고 싶다.



일주일의 기적

교육원 5기 교육생으로 지낸 지난 2년을 생각해보면, 약 한 달간의 오프라인 집중교육 및 과제 수행에 200시간 이상을 투자한 것 같다. 누군가는 이 시간이 교과 공부가 중요한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난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통해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부한다.

중 2 여름방학, 첫 오프라인 집중교육을 마치고 난 후부터 나는 매번 방학을 기다려왔으며, 학기 중에도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과제에 빠져 살았다. 학기 중에 포럼이나 페스티벌에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나는 그곳을 좋아했다. (이런 나를 지켜보신 아버지께서는 교육원이 종교집단이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시곤 하셨다) 고작 일주일의 오프라인 집중교육이었지만,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었던 네 번의 일주일에 대해 간단하게 글을 남기고 싶다.

내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꼭 빠져 살았던 것은 단지 공부 이외의 활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곳에서 나는 비전, 꿈, 진로 등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에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인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잘 먹고 잘사는 것인지 아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이곳에서는 '관심 분야가 뭐야?'라는 말을 안부 인사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신과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진 교육생들끼리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초기에는 이렇다 할 관심 분야가 없어서 이야기에 참여하기보다 듣는 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오히려, 동기와 선배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 하나, 이곳의 매력은 나와 비슷한 관심 분야 및 다른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두루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원에서는 동기들 간의 유대감이 아주 크다. 두 살 터울이지만 언니, 오빠에게 진로에 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었고, 또래들과는 진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지하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이겨낼 수 있었다. 오프라인 집중교육 동안에는 진로 이외에 기술분석, 고객의 요구 파악을 통한 사업 아이템 구상 등의 활동을 했다. 마지막 오프라인 집중교육에서 경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해본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오프라인 집중교육이 좋았던 이유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면서, 온 신경을 쏟아부어 결국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의 그 느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생이 느끼는 감정 이겠지만 특히, 나에게 오프라인 집중교육은 활력이자 힐링이었다.

길 것만 같았던 2년이 지나 현재 수료생으로서 심화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과학고에 갓 입학해서 정신없기도 하고 앞으로 바쁠 것이라는 걸 잘 알지만 나는 이 교육을 꼭 받고 싶었다. 기본교육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심화과정을 통해서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싶다.

5기

윤채은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재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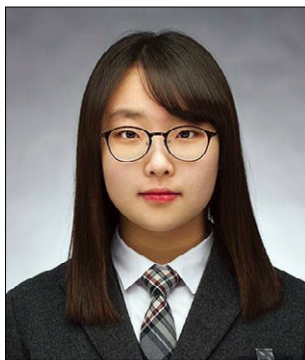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2017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대회
은상, 오머상, 글로벌 리더상 수상
(국가대표 자격 취득)(2017)

3D 프린팅 창작 경진대회 단체부문
2위(2017)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과학실험
프로그램 운영(2013~2017)

'움직이는' 3D 프린팅 디자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2016)

교내 창업동아리 'SUIT' 운영/
로봇동아리 '삼디마스'에서 활동중
특허 출원 2건



나의 큰 버팀목이자 가로등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내 인생의 전환점에 관해 묻는다면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입학 전과 후로 나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곳은 내게 큰 존재이자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교육원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니었다. 확실한 꿈과 목표가 없는 나와는 달리,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약간의 자괴감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 내가 동기들 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첫 오프라인 집중교육에 참여하기 전까지 그들과 비슷해지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런데도 결과물은 별로 좋지 않았고,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잘해나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 혼자만 뒤처지면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에 오프라인 집중교육이 다가오는 게 썩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첫 번째 오프라인 교육 이후 서서히 사라져 갔다.

나뿐만 아니라 동기들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고,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함께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과정을 혼자서 겪어야 했다면 분명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또한, 도중에 포기하고, 예전처럼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수행하는 수동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갔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의 꿈과 나만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교육원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의 표지판처럼 안내도 해주고 직접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교육원의 캐치프레이즈인 '꿈을 찾아 드립니다.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을 통해서 나의 꿈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며 삶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교육원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다른 학교나 학원, 교육원에서는 맺지 못할 값진 인연들을 얻은 것에 대해 교육원에 미리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교육원에 입학했을 당시 동기들 모두 대단해 보였고, '내가 감히 저런 애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함께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더불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의 지식을 친

구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힘이 생기게 되었다. 고정관념을 깨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원 선생님들과 조교들 덕분에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렇기에 더욱, 청소년기에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보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아쉬웠다.

내 인생에서 교육원은 단순히 스쳐 지나간 하나의 교육원이 아니라 인생의 큰 작용점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곳에서 받은 교육들과 많은 인연 덕분에 혼자서는 하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숙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의 기본과정 교육은 끝났지만, 그로 인해 맺어진 것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은 보이지 않는 길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나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이제는 가로등에 의존해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찾아 나아가는, 궁극적으로는 밤하늘의 별처럼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5기

허동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

4D 오프라인 최우수(2016)

3D 온라인 'I'm Possible' 우수(2015)

특허출원 1건



꿈꾸는 학교

꿈이 뭐니? 하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 내 꿈은 정말 컸고, 지금도 여전히, 아니 더 크다. 세상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양성 평등, 전쟁 없는 세상, 모든 범죄, 특히 성 범죄 살인죄 근절, 난 그저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고,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어울려 살고 싶고, 내 복장과 여행의 자유를 갖고 싶고, 밤에 한적한 골목길을 걷고 싶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싶지 않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싶을 뿐이다. 어쩌면 모두의 꿈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교육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이런 꿈을 모두 얘기한 적이 없었다. 첫째, 너무나 막연하고 사실 완벽한 실현이 불가능한 꿈이기 때문이고, 둘째, 대충 내 생각을 내비쳤을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이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이다. 난 "아, 오글거려."라고 말하지 않고 진지하게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다.

6기

오연진

한국뇌캠프(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수료(2016)

STRONG KOREA 포럼 참여(2016)

원당고등학교 과학잡지 발간 (2015,2016)

글로벌인재포럼 참여(2015,2016)



난 어렸을 때부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캠프나 행사, 강연 등을 즐겨 찾았다. 영재기업인교육원도 그저 그런 활동들 중 하나로 생각하며 중 1때 학교에 붙은 홍보 포스터를 스쳐보면서 '아 신청 해야겠다' 하곤 잊어버렸다. 그러던 중 중 3때 친한 동아리 선배가 본 교육원 모교 홍보대사로 중학교에 방문했었다. 그때 선배는 대학교 과잠같은 교육원 점퍼를 입고 명함과 팜플릿을 나눠주며 자율적이고, 열정적인 교육원생들과 자아와 꿈을 찾는 프로그램들을 설명해주었고, 나는 꼭 빠져 바로 신청했다. 면접은 재미있었다.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았고, 그게 직업이든 뭐든 내 꿈을 소개하는 것이 좋았고,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행복했고, 어떤 상황에 대한 내 관점을 얘기하는게 좋았다. 그렇게 즐긴 면접은, 교육원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도 가져다 주었다. 과학고를 떨어진 뒤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가는 내 기대가 더 커졌다.

첫 오리엔테이션 때는 설레고 재밌었던 게 먼저라 프로그램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잘 몰랐다. 그런데 1D교육 때 내 자아를 찾고 기존에 배울 수 없었던 새로운 교육들을 접하고, 꿈을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점 내 꿈이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더군다나 여기서 내 꿈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글거린다고 탓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진지하게 경청하며 동의했다. 너무 행복했다. 1D캠프가 끝나고 6기 단체 채팅방에 많은 친구가 '살아있

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벅차올랐고 내 고등학교는 행복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원의 괴리감은 무서우리만치 컸다. 유독 우리 학교가 그런 건지는 몰라도 우리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고 담임선생님께서 내 얘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시며 무시하셨다. 선생님 본인의 의견과 다를 때, "예의 없이 선생님을 기만한다."고도 하셨다. 난 예의범절을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지키는 학생이었다.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매일 울면서 학교생활을 보냈다. 내가 자라면서 접했던 수많은 책과 강연들에서 보고 들었던 것은 창의적인 사고로 행해지는 많은 학창시절 활동들과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은 당연하다는 사실들이었기 때문에 파란만장하고 활기찬 고등학교 생활을 꿈꿔 왔었다.



하지만 새로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그 꿈은 처참히 짓밟혔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아리, 축제,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모든 학교 커리큘럼에 있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소통이 모자랐다. 학교 수업과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수없이 많은 컴플레인을 넣었다. 선생님마다 찾아가 부탁했고 여쭙봤고 하소연했다.

창의체험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고 과학실에 있으며 수업 거부도 해봤고 울어도 봤다. 하지만 거의 모든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였고 소수를 제외한 친구들은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불평하고 욕 할 뿐, 모든 학교 커리큘럼을 받아들였다. 더는 반항하는 것이 무의미했다. 힘들었고 절망스러웠다. 내가 비전과 꿈을 얘기할라치면 친구들은 질색했다.

그런 내게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 되어 준 것이 교육원이었다. 교육원은 내 절박한 도피처였다. 교육원 오프라인 캠프, 글로벌인재포럼, STRONG KOREA 포럼, 연합캠프, PCEO 페스티벌에 있는 동안 나는 살아 있었고, 꿈 꿔고, 푸르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을 수 있었다. 점점 넓어지는 시야는 학교에 충족하지 못했고 더 넓은 세상을 꿈꿨다.

특히 온라인 과제 지침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는 “YOUR DREAM IS OUR FUTURE”라는 글귀를 처음 보고 소름이 돋았었다. 우리가 꾸는 꿈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거라는 것이 너무 멋지고 희망찼다. 또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뿐 아니라 소중한 인맥을 얻었다. 그 인맥은 단지 친목만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같이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은 마음껏 꿈꿀 수 있고 그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꿈의 공간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암울했던 학교생활 동안 그나마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교육원 덕분이다. 정말 미친 듯이 울었고 힘들었고 절망스러웠던 그 생활에 빛이 되어 준 교육원에 정말 감사하다. 교육원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고3이 된 지 두 달쯤 돼가는데 교육원의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너무도 소중했다는 것이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빨리 고3이 지나가 다시 교육을 받고 큰 꿈을 꾸고 싶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CEO 하성준입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CEO 하성준입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 항상 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짧다면 짧은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에는 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가치관이 녹아 들어있다. 그리고 이 짧은 한 줄을 있게 해준 바로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이 있다.

단순히 기업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2년전 나는 우연히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6기 수료생이 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경험과 추억과 지식을 쌓은 것 같다. 매 학기로 진행되는 온라인 과제, 처음 1D 때 제출했던 과제를 다시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피티 디자인이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났다. 그 만큼 나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과제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객, 소비자를 직접 훑쳐(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불편한 점을 파악, 그리고 그 불편한 점을 직접 해당 업체에 편지로 써서 전달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느 곳을 할지부터 고민이었는데 천천히 시야를 돌려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로 초점을 맞추고 시작했다. 고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편지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고 이메일로 편지에 대한 답장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제를 통해서 단순히 기업이 고객을 바라보는 중요성도 알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수많은 회사의 고객으로서 정당하게 불편함을 요구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고, 제품/ 서비스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편지를 보내는 습관을 가지게 해주었다.

매 학기 방학에는 7박 8일간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집중교육을 받았다. 친구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에 부딪혀 정체가 되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같은 꿈과 공통된 관심사로 모인 친구들과 7박 8일간의 캠프는 그 자체로 재미있었고, 주제적으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함께한 시간으로 치면 정말 짧지만 교육원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 보다 더 가깝고 말이 잘 통하는 소중한 친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오프라인 캠프의 꽃, 발표는 추첨을 통해 발표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어릴적 부터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동경 해오며 발표를 좋아했지만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육원에서 수번의 발표 시간을 가지고 매번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안해 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여담이지만 학교에서도 매번 발표를 하면 친구는 물론 선생님들도 칭찬을 해주신다. 그럴 때 마다 교육원이 정말 고마웠다.

마지막으로 교육원에서 얻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 뽑으라면 앞서 말했지만 ‘인적 네트워크’라 하고 싶다. 쉽게 말하면 친구를 말하는 것이다. 어디서 이런 공통된 꿈과 목표, 열정,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나 볼 수 있겠는가. 교육원에 들어오고 첫 오리엔테이션 때 교육원 선생님께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당시만 해도 그 가치를 잘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 사람 한분 한분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다. 같은 동기 6기 친구들부터 조교 선생님으로 오신 선배 기수분들, 교육원의 어머니 교육원 선생님들, 캠프에서 만난 여러 대표님과 교수님, 연구원님들, 글로벌 인재포럼에서 만난 연사분들 부터 뛰어난 열정가까지 정말 두고두고 그 분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게되었다.

짧았던 2년이 지나고, 이제는 매주 일요일 과제가 없음에 쓸쓸함을 느낀다. 방학 때는 캐리어를 싸고 포스텍 국제관에 가서 머리를 싸매야 할 것만 같다. 학교 보다 더 편하고, 친근하고, 행복했던 교육원의 생활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한번 PCEO는 영원한 PCEO.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이런 친구들이 더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 꿈꾸는 비전이 이루어진 그날이 올 때까지, PCEO 화이팅. 2년 전, 꿈 많은 공상가를 뽑아 주신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6기

하성준

포항공고등학교 재학 중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2018)

절단 장애인을 위한 3D프린팅 의수 보급 단체 '다섯손가락' 창단 및 운영(2017)

청소년 3D프린팅 커뮤니티 '대한청소년3D프린팅연합' 창단 및 운영(2017)

대한민국 인재상(2017)

3D프린팅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학생부 경북대학교총장상(2016)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과 함께한 나의 성장 이야기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의 시작은 가장 예민할 시기인 중2 때였다. 한창 흔히 말하는 중 2병에 걸릴 시기쯤에 7기 동기들 덕분에 벗어나지 않았던가 같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경험, 여러 사람이 함께했던 2년 이 내 걸모습뿐만 아니라 성격, 사고방식도 바뀐 것 같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 후회 없는 2년이였다. 더불어, 내가 이전보다 성장했다는 걸 느낀다.

첫 번째로 경험이다. 포럼에 많이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되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 꿈도 한껏 다지는 경험이었다. 포스텍으로 내려오다가 기차에 못 내려서 표를 다시 사거나, 비가 와서 환승까지의 여유인 30분을 연착으로 인해 전부 날려버려서 캐리어를 머리 위로 들고 대전 역을 활보하던 일도 있었다. 여러 포럼을 다니면서 처음 보는 사람과 명함을 교환하거나, 밥을 같이 먹기도 하였다. 지금 보면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수원이라는 작은 도시에만 살면서 외부로 나갈 생각은 조금도 없던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에 적응할 수 있게 된 기회였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다. 우리 7기의 자랑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다 좋았다. 물론 다툼이나 말싸움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툼 뒤에 화해를 통해 돈독해진 경우가 많다. 보통 같은 또래들은 서로 경쟁만 할 수 있는데 교육원에서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 마음이

7기

박지환

경기북과학교등학교 재학 중

제 39회 경기도학생발명품 경진대회 동상(2017)

VEX Robotics challenge 은상(2015)

제 35회 경기도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최우수상(2013)

1D 오프라인 최우수



편하다고 말하던 선배들의 말을 공감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과제나 자료조사, 발표 등을 더 잘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캠프를 끝내고 집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내가 더 열심히 조사했다라면, 더 준비를 잘했다라면, 더 귀 기울여 들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시간이 많았다. 수고해준 팀원들에게 내가 보탬이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결국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 그들과 더 즐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던 사람들과의 생활은 내가 다른 사람을 자주 생각하고 좀 더 감정을 제어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세 번째로 교육이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2년간의 교육이 지금의 나로 키워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기업이 정신과 기업이 초청 강연은 내가 교육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졌던 창업과 CEO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었다. 교육원을 알기 전, 그저 로봇과 기계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장래희망을 형식적으로 로봇공학자라 적으며 나 자신을 로봇공학자가 꿈인 소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좋아하는 기계와 로봇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술을 개발해 그것을 이용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스타트업의 일원이 되고 싶은 구체적인 꿈을 가진 소년이 되었다. 여러 창업가는 공통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다. 600명의 CEO가 있다면 600개 이상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600개 이상의 교환과 경험을 우리만의 방법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허 교육이다. 특허는 이전까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였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다. 내가 알던 것은 빙산의 일각인 그저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곳에서 깊이 있게 특허를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특허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특허 교육 덕분에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마다 수상을 거두었고 현재는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습관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교육을 통해서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다.

포스텍에서의 지난 2년간의 경험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만큼 진귀한 시간이었다. 기간만으로 계산하면 얼굴을 보고 지내는 시간은 한 달이 채 안 되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었다. 이제 남은 건 입시와 대학, 그리고 미래이다. 모두 이곳에서 각자 얻은 것들로 원하는 일을 이루고 하루빨리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꾸밈없는 모습으로 타인을 만날 수 있는 곳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7기로 모두가 함께했던 모든 날이 아름다웠습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7기가 되기 전에는 진정한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했고 현실에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기가 되어 친구들을, 동생들을, 언니들을, 오빠들을 만났을 때부터 나를 찾는 여행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알아보고, 능력을 인정하고,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결점도 단점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든 것에는 물론 가족도, 학교도 있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관계를 만드는 방법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과 나 자신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 건 7기들이었어 것 같습니다. 친했던 친하지 않았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했고 이유 없이 웃음이 났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7기

이수안

인천국제고등학교 재학 중

경영동아리 TIMES 부장

매일경제 NIE 경진대회 우수상(2017)

STRONG KOREA 포럼/글로벌 인재 포럼 참석(2016,2017)

미네르바스쿨과의 만남, 미네르바 스쿨 심포지엄 참석(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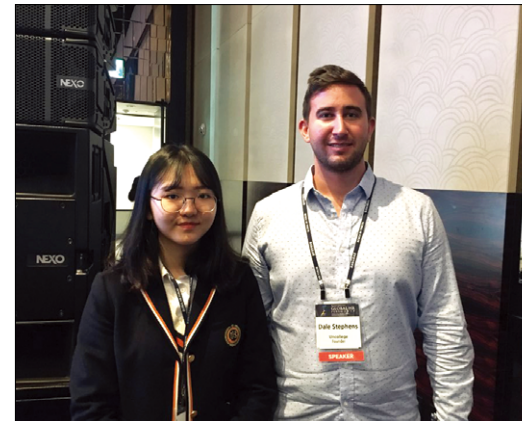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분명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D부터 4D까지 고객 니즈 분석부터 사업 제안서 작성 등 온/오프라인 교육부터 커뮤니티와 포럼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깨달음까지... 레비나스는 민낯에 대해 말했습니다. “꾸밈없이 민낯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광장에는 민낯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7기로 살면서 교육원 친구들의 민낯을 보고, 저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와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집에서, 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 역시 집에서, 학교에서의, 그리고 인천이라는 저의 작은 세상에서의 저와 교육원 친구들과 함께일 때의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교육원 친구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 진심이었고, 매 순간 진짜 나로 존재했고, 그런 저를 좋아해 주어서, 사랑해 주어서, 아껴주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일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의 그들의 모습 역시 진짜 그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육원의 친구들은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리더이자 팔로워였던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비단 지식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비전, 라이프스타일, 관계, 인성, 마음, 감정,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들의 길을 닦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시작에 우리가 함께했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걷는 과정에 서로가 함께 존재하기를, 단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예뻐던 사람들로, 가치 있는 경험으로,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만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Find something you would die for, and live for it.’ 우리들의 something은 모두 다르겠지만, live for it 하며 힘들 때도 지칠 때도,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그냥 생각 날 때도 서로를 찾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이 결코 제가 가장 많이 슬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헤어지는 것에 슬펐고, 지금도 서로가 보고 싶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원 캠프가 끝난 한 달가량은 현실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나다운데, 나를 감추고 공공 싸매야 살아남는 곳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D가 끝난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정상에서 우리 모두 만났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선뜻 도움을 내어줄 수 있을 때,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교육원에서 말고는 해보지 않은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어서 느끼는 행복은 제가 지금까지 느낀 행복, 이제부터 느낄 행복보다 늘 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하는 한 계속 사랑하고 아낄 것이니까요.

나에게 진짜 나를, 진짜 친구를, 진짜 내 사람들을,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7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꾸밈없이 사랑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인생 수업

사실 이 글을 쓸 날이 오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처음 알게 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본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수료를 하게 되었다.

나는 7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였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주로 맡았던 것 같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을 이끄는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영재기업인교육원 친구들을 이끄는 것은 이전의 경우와 달랐다. 교육원 친구들은 하나하나 풍부한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주관, 라이프스타일, 태도 등 본인들만의 확고한 생각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보통 일반적인 공립학교에서 학우들을 이끌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아무래도 교육원 친구들은 일반 학교에서의 친구 중 리더 격인 친구들을 모아놓다 보니, 한 팀 내에 리더가 매우 많다는 느낌을 오프라인 캠프 때마다 느꼈다. 그렇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했고, 모두 한 사람의 공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장점을 살려 프로젝트를 같이 완성해나갔기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확실한 주관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경우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7기

홍석현

파주 문산고등학교 재학 중

(쥬버빙 대표이사)(2018)

경기도 청소년 참여기구 우수활동

경기도지사 표창(2017)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경기지역

위원, 중앙의제연구팀 (도대표)

(여성가족부 산하)(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우수활동단원

연구원장 상장(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산하 청소년정책모니터단 경기지역

부단장(2015)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학교에서는 자주 경험할 수 없었던 '방향의 충돌'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던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교육원에서 먼저 경험한 것은 우리 교육생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훌륭한 인생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서로 위계질서와 스스럼없이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도 해보고, 뼈있는 조언도 하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원과 그 안을 구성하는 교육생 간의 상호작용이 정말 좋았다고 밝히고 싶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을 통해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는 타 어떤 기관에서도 형성할 수 없는, 절대 살 수 없는 인연을 형성하게 된 것 같다.

우리 선배 기수들을 보면 교육생들끼리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처럼 교육원은 우리에게 기업가가 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원생들끼리 서로서 배우고 발전시키는 교육까지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일반인들이 잘 알게 된다면 우리 교육원의 가치는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 교육원은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힘을 전달해주는 것 같다. 창업가 혹은 기업가가 되어 혁신을 이룩하려면 기존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제시해 진짜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교육원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게까지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아 다른 어느 곳보다 높은 가치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과정 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교육원 교육과정을 따르며 2년간 미래사회를 이끌기 위한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교육원에 다시 조교로 와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거나 심화과정에 참가하여 실제적인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하고 싶다.

우리 중에 실제로 기술기반 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여 활동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 사회는 기존의 틀을 깨고,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해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고 사회를 주도할 수 있기에 교육원에서의 경험과 교육,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큰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한다. 2년이란 세월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정말 좋은 교육원 선생님들, 7기 동기들과 미래사회를 이끌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며 보낸 것이 감사하다.



학부모 수기

탄탄한 교육 속에서 든든한 아들로

1기 이준수 학생 학부모

준수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지원하고 합격한 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뿌듯한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준수가 경험했던 교육은 그 동안 학교에서 겪어왔던 교과서 위주의 교육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준수가 교육원 교육을 이수하면서 뜻있는 교육원 동기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하여 활발히 개발하고, 토의하며, 협력하고, 고민하는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저 역시 이런 교육을 어린 시절 받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기업을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잘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보면서 깊이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준수는 교육원을 통해 좀 더 열정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원의 전담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며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창의적으로 달라졌으며, 예전과는 다른 문제 해결 능력과 진취성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수의 변화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준수는 교육원에서 공부하면서 교육원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기업과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불투명한 장래에 불안해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단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고, 기업이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기성세대보다 더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성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수가 현재와 미래에 어떤 공부를 해서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진 것을 보고, 교육원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이 아이들에게 기업을 창업하여 CEO가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가정과 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교육원도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훌쩍 자란 아들을 보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기 장세윤 학생 학부모

“엄마, 합격이야 합격!”

그날, 그 감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뻐뻐합니다. 전국에 재능 넘치는 수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곳에, ‘우리 세윤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원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려와는 달리 다행히도 세윤이는 고1 겨울방학 때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1기생으로 입학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재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세윤이는 무조건 “과 학자가 되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원 교육을 받은 지금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멋진 기업가의 꿈을 꾸고 있으며, 자기가 멋진 기업가로 성장해 있으면 대학에서도 교수로 초빙해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등 더욱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에서도 기업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교육원에서 배운 적정 기술을 토대로 아이템을 구상하며 기업가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비전, 열정, 정체성, 학습능력,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엮어져야 하는데, 세윤이는 교육원을 통해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모아 연결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원 교육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 각 개인의 적성 검사와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1대 1 상담을 해 주었던 일입니다. 세윤이는 상담을 통해 힘든 고등학교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었고, 선생님들과 진로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도 상의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원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벤처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에게 꿈과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기 이후 학생 학부모

예전에는 이호가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시도하는 등 자만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교육원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과제를 수행하고, 강연을 들으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영재교육원들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했었지만, 완전히 다른 체계였습니다. 현재의 심화한 지식이 아닌, 미래를 보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해주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가 교육원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고 지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호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첫 집중교육이 지나고 제 아이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꿈에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지식이 아닌 스스로 원해서 지식을 함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3기 오주영 학생 학부모

지금도 첫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두근두근했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원을 통해 아이의 책장에 늘어난 책들을 보면 너무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교육원 입학 초기에는 교육 필독서를 보면서 ‘중 2가 과연 끝까지

배움을 향한 한걸음, 한걸음

궁금증의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관련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즐까지 그어놓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책을 다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딸 아이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암기식 공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즐거움과 지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가는 모습이 보기에 기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딸의 생각 주머니가 커지면서, 중학생이 늘 접하고 좋아하던 분야의 책만 읽던 막내동이가 아니라 제법 ‘꿈. 가치관. 소명’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교육원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스텍 영재 기업인교육원에서 앞으로의 인생계획, 진로 고민, 진학 문제 등을 여러 방면에서 경험하면서 하나씩 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가장 좋고 변화된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4기 손종우 학생 학부모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밤새 만들고 실패하면서 다시 구상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나?’, ‘우리 아이를 제대로 이끌어줄 교육기관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확고한 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교육원을 통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꿈, 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조사하는 등 관련 역량을 갖추어 가는 과정을 밟으며 힘들다는 말 한번 하지 않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의 교육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칫 타고 가야 할 기차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놓치더라도 꿈을 찾는다면 다른 교통편을 찾아 아이가 현명하게 길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꿈을 찾는데 포스텍 영재 기업인교육원과 함께라는 걸 알기에 어리석은 염려는 이제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라면 포스텍 영재 기업인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5기 이원재 학생 학부모

“이번 시간은 글로벌인재포럼 제30회 세션 두 번째로 ‘우리의 꿈, 우리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의학 지식기반 생체모방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인 ‘Heart For You’의 CEO이자 Wyss Institute 박사이신 이원재교수님 모시겠습니다.”

20년 전 글로벌 인재포럼에서 강연을 들던 한 학생이, 20년 후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PCEO)을 통해 꿈을 찾고, 꿈을 이뤄 마침내 성공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와 제 아들은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꼭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무대 위에 저분들처럼 저 또한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 단상에 서서 꼭 발표할 거예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것을 꼭 보여드릴게요.” PCEO 5기 자격으로 2년 연속 글로벌 인재포럼 참가 후 제 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저에게 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꿈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이런 꿈을 갖게 된 제 아들이 마냥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신기합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성장시켜준 PCEO도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제 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명함을 내밀며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PCEO 5기라고 소개하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큰 자부심을 느껴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걱정이 될 만큼 학업보다 더 열심히 PCEO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아이는 마치 재밌는 게임을 하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어진 과제를 하면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교내외 특강에서도 제 아이는 강연이 끝나면 어김없이 PCEO 명함을 건네며 질문을 하고 강연자의 저서에 친필 사인을 받곤 했습니다.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석학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인증 샷 찍는 것 또한 잊지 않았고 이러한 활동들을 블로그에 소개하며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또 국어독서토론 발표시간에는 오픈 톱 시간에 다루었던 책 안드라카의 책과 데니스 홍의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관련된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을 발표해서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을 새우며 과제를 하고 발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는 뒷전인 아이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I'm possible list를 작성하고 실천하면서 더욱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변하는 것 vs 변하지 않는 것, 존재의 이유’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는 특허출원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이지만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프라인 집중교육을 다녀와서는 새롭게 배운 개념이라며 IFR, 9Windows,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등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못 하는 저에게 동영상 보여주면서 마치 전문가인 양 세련된 어투로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 아들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에서 저는 ‘영재 기업인으로 거듭날 자격을 갖추어가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PCEO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저에게는 평상시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유명인사 및 석학들과의 만남과 강연들을 통해 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꿈을 찾아가는 도약의 단계

아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준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 고마워요!

는 세상을 다르게 보며 미래를 선견하는 지혜의 눈과 꿈에 대한 진지함을 갖게 해주었으며,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전정신과 회복탄력성, 그리고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연과 세상에 반하고, 기계에 반하고, 친구에 반하고, 아이디어에 반하게 된 제 아이는 이제 하나의 꿈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연을 오남용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자연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인류가 서로 다른 생물과도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과학과 생체모방공학을 접목해 의학 연구에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아이와 저, 그리고 PCEO와의 인연은 벌써 3년째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식이 아프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PCEO와의 만남을 통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순간순간 도전을 하며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행복한 인생을 제 아들은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PCEO와의 인연을 맺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3기 손영락 학생 학부모

“엄마~~ 나 여기 정말 가보고 싶어요~ 아니 꼭 갈꺼예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가 하고 후 숨넘어가게 꺼낸 얘기에 뭐지? 했다가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이라는 생소한 명칭에서 더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기업인, CEO라는 단어에서 대충 감은 왔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영재교육원 중 처음 듣는 교육원이었거든요. 신이 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아이를 보다가 무모하다는 생각에 학교 선생님께 좀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저를 설득하는 웃긴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아이는 3년의 시간을 영재기업인교육원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여기를 다니지 않았더라면?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아이와 부모 모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국에서 모인 최고 수준의 형, 누나, 동기들이 많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외동인 아이에게 같은 기수 한명 한명이 멘토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밀감과 유대감은 끝내줬고 포스텍 교육원의 모든 기수뿐만 아니라 연합 캠프를 통해 카이스트의 교육원생들까지도 끈끈한 우정으로 뭉쳐 있는 것을 보고 사실 많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맥은 여기 교육원이 아니었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오프라인 캠프가 있게 되면 시작 전부터 끝난 후까지 감동과 흥분의 여운이 남이 있는걸 보게 될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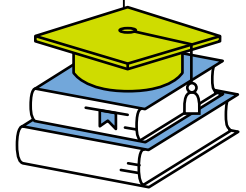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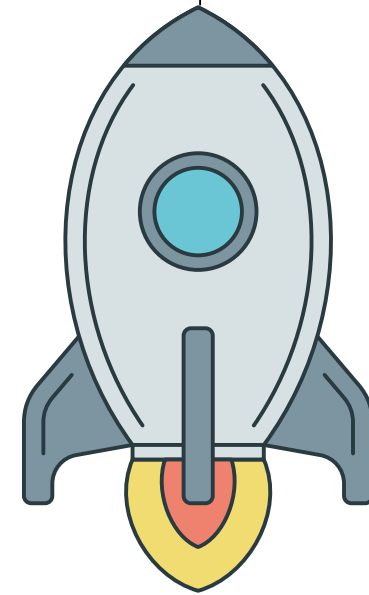
특히 캠프 때 CEO 강연이나 글로벌 인재포럼에 참여하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의 열정적인 에너지는 아이의 가슴을 더 크고 뜨겁게 해 주었습니다. 교육원의 교육내용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아이의 사고가 틀에 매이지 않고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꿈에 대한 비전이 더욱 확고하고 명확해졌으며, 그 목표에 대해 행동이 더 계획적이고 도전에 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실패의 경험이 거의 없었던 아이가 슬럼프나 실패를 했을 때 처음엔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며 포기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위기와 실패에 대한 단련 교육(?)을 받은 것인지 지금은 실패를 하거나 목표를 못 이루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시 보니 내가 이 부분에 좀 미흡했던 거 같아. 다음에 다시 도전할거야. 첫 술에 배부르겠어? 좀 더 연구를 해봐야지. 하며 능글능글 웃고 있는 아이를 봅니다. 이럴 땐 실패에 대해서도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는 여유 있는 아이의 모습에 저도 흐뭇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재는 뺏속까지 기업인 마인드야 라는 말들을 하는데 웃긴 예를 하나 들자면 중3, 고1때에 와서는 선생님들이 발명품 설명을 듣고 나면 왠지 저걸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하십니다.

아이가 이렇게 교육받고 성장해 왔다면 제가 엄마로서 가장 감사하는 부분은 바로 상담에 대한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자유로운 아이가 학교생활을 굉장히 숨막혀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 갈등하고, 자신의 진로문제를 고민할 때 공감하고 지지하고 인정해 주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수동적인 주입식 교육과 틀에 박힌 환경을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며 살아온 나로서는 불합리한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안주하기 보다는 변화를 꿈꾸고 남들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가려는 아이가 버거웠고, 아이의 생각이 맞지만 박수쳐 줄 용기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춘기까지 겹쳐 그야말로 질풍노도 아슬아슬한 시기였습니다.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희안하게 상담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고 우리는 오프라인 캠프 때마다 학생상담, 부모상담을 따로 신청하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담교수님 외에 발명진흥원선생님과 포스텍 교육원선생님께서도 평상시에 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들어주시고 많은 공감과 격려를 해 주셨으니 아이를 함께 키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장래에 어떤 기업인으로 세상에서 활약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어디서든 열정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는 것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비단 우리 아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생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행운에 감사드리며 다른 분들도 영재기업인교육원에 많이 도전하셔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이야기



- ▶ 교육 엿보기
- ▶ 선발 안내
- ▶ 교육원 만나기
- ▶ 언론보도

교육 엿보기

기본 과정

사업기획 프로젝트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는 방법론을 학습하고, 고객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기획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변 스타트업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상품을 출시하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고객의 마음을 알아내서 분석한 후, 그를 기반으로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낼 수 있는지 배우게 되어서 매우 알찬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진짜 창업을 할 기회가 찾아온다면 이를 응용해 사업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경영시뮬레이션 활동

회사 설립 및 투자 유치 활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업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 교육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기다렸던 경영시뮬레이션인 만큼 매 시간이 너무 재밌고 유익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이 마치 진짜 CEO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다. 단순히 아이템만 기획하고 발표하던 이전 과정보다 훨씬 현실감도 느껴지고 진짜 같았다.”

포스텍연구실 방문



“우리 팀은 포스텍의 많은 연구실 중에서 산업경영공학, 인간공학 연구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실제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 정말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인간공학, 산업경영공학이 어떤 학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연구실 방문을 통해 산업경영공학과 인간공학에 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겼으며 언젠가 나도 포스텍 같은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가 특강



“대표님께서 창업과 관련된 강연을 하실 때 ‘살아남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셨다. 창업해서 엄청나게 잘 되는 방법보다는 살아남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 당연하지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은 것 같다. 대표님께서 던지셨던 ‘왜 창업을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나는 ‘작은 아이디어로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라고 답변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 조언을 참고하여 세상에 큰 변화를 주고 싶다.”

심화 과정

해커톤 과정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웹/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상한 아이템을 웹/모바일 MVP로 개발하는 개인 혹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교육과정보다 템포가 훨씬 빨랐다. 그래도 앱/웹/제품에 대해 배우면서 흥미를 느꼈고,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면서 보다 깊게 이해하고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또한, 교육원장 교수님이 해주신 창업 강의를 통해 여러 지식을 얻어서 좋았던 것 같다.”

챗봇 과정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드는 과정과 개발한 인공지능을 챗봇에 탑재하는 개인 혹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정해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가지며 챗봇을 개발하는데 치중하였다면 이번 교육의 경우 간단한 시를 기반으로 한 발전된 챗봇을 개발하게 되었다. 평소 관심을 가지던 개인화된 챗봇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챗봇을 기획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공동의 일을 잘 분배하여 시간대비 효율성을 높였었던 것 같고, 밤새서도 의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며 절로 내가 눈물이 나올 뻔 했다. 이제 고3이 되어 마지막 캠프지만, 정말 뜻 깊었다.”

PCEO 온라인 멘토& 견학



직접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후반부에 직접통화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영상을 보고 듣는 것과는 확실히 실시간이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고, 질문이 많았는데 끝까지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본 교육원의 오프라인 집중 교육에서 기업가를 직접 만날 기회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중에도 기업가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기업가 강연을 듣고 실시간 채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강연 이후에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보는 '기업 견학'을 연계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분위기, 문화, 팀 조직 구조를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PCEO 페스티벌/홈커밍

본 교육원의 교육은 기수별로 진행이 되지만, 일년에 한 번 전 교육생이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PCEO Festival(홈커밍)입니다. 이 행사는 교육생들이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비전과 꿈, 관심사를 깊이 있게 공유하고, 나아가서 향후 사업화 동료 및 팀을 구성하기 위해 매칭이 되는 교육생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포럼 오찬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리더와의 만남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었다. 벤 박 대표님과 배양숙 이사장님께 내 꿈과 내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했던 질문들에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두 분께서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좋았다."

글로벌 인재포럼은 매년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고위인사, 글로벌 기업 CEO, 세계 유수 대학 총장과 학계 전문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의 지원으로 본 교육원의 교육생들은 글로벌 인재포럼 행사에 매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지구촌 모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선발 안내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전형을 거쳐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차 면접 전형은 사전 과제 보고서, 발표 및 그룹 토의를 통해 지원자들의 기본 소양 및 꿈과 열정, 도전 정신 등을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경험'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라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적이나 실적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이라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해보세요.

꼭 기업가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현재 기업가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지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학생 수준에서 기업가라는 꿈을 명확하게 품고 진로를 확정 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업가를 꿈꾸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목표가 명확하다면 교육원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업가로서 준비되어있는 사람도 좋지만, 미래의 기업가로서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지원할 수 있나요?

선발 서류전형 평가에서 전반적인 성적을 검토하고, 특히 수학과 과학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하지만 본 교육원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수학과 과학의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교육원은 다른 영재교육원과 다르게 수학 또는 과학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습 능력은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교육원에 합격하는 데 영향은 있지만, 공부를 못하더라도 교육원의 인재상에 부합한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교육생 중에서도 선발 당시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꿈이 명확하고 그 꿈을 향해 매진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당당히 합격하여 열심히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발 요소 중 학습능력보다 자기 소개서와 면접 전형의 점수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학습능력이 조금 부족 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관심 분야를 명확히 하라

교육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구체적인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아직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인상 깊었던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 당장 뚜렷한 성과(수상 경력 등)가 없더라도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교육원에서는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열의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어필해야 합니다

교육원을 잘 파악하라

만약 여러분이 교육원의 심사자라면 교육원에 대해 잘 모르고 지원한 학생을 뽑을 수 있을까요?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원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어쩌면 합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일 것입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본 교육원에 대해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본 교육원의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인상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원 홈페이지, 브로슈어, 수기집 등을 통해 충분히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선발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교육원 홈페이지(ceo.postech.ac.kr)-입학, 선발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교육원 만나기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기회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육원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STECH CEO REVIEW

POSTECH CEO REVIEW는 격월로 발간되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소식지로, 교육원 소식, 이달의 교육소개, 온라인 우수과제, PCEO Insight(최신기술/스타트업 관련 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원 재학생, 수료생, 학부모님, 예비지원생 등 누구나 재미있게 교육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의 온라인 매거진입니다. 본 교육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재미있게 교육원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POSTECH CEO REVIEW는 교육원 홈페이지(ceo.postech.ac.kr)-알림 홍보-P.CA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글로벌 인재포럼 특집호



PCEO Insight 페이지

오픈 캠프

오픈 캠프는 교육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사전 지원하는 '예비 지원자 제도' 신청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집중교육을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원의 기본과정 오프라인 집중교육 내용 중 일부(선배와의 만남, 포스텍 투어, 기업가 강연 등)를 미리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비 지원자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ceo.postech.ac.kr)-입학-선발-예비지원자제도에서 가능합니다.



2015 오픈캠프 중 포스텍 투어



2017 오픈캠프 중 선배와의 만남

모교 방문

혹시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 교육원 출신의 선배나 친구가 있다면 모교 방문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육원에서는 매년 봄학기 재원생 및 수료생 모교 방문 홍보대사를 선정합니다. 모교 방문 홍보대사들은 자신이 졸업한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교육원을 홍보하고 선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로서 활약합니다. 2014년 모교 방문 홍보대사가 시작된 이래로 약 80여 명의 홍보대사가 활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원 입학에 대한 생생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중학교 모교 방문 (6기 하성준)



청심국제중학교 모교 방문 (4기 정다희)

설명회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매년 서울, 대구 등의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소개 및 선발 팀을 공유하는 시간뿐 아니라 교육원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교육원 홈페이지(ceo.postech.ac.kr)-공지사항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 부산설명회 중 수료생 강연



2017 대구설명회 중 교육원 소개

언론에 보도된 영재기업인 교육원생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합니다.

“발명은 괴짜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서경-특허청 주최 좌담회 뭉뚱한 이야기]
서울대&포스텍 출신 두 업친아, “발명은 내 성공의 밑거름”
“창의성,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큰 도움”



“발명이라고 하면 ‘괴짜’ 아이가 골방에 틀어 박혀 하루 종일 똘을 만드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천재 발명가 에디슨이 어린 시절 병아리를 만들겠다고 닭장에 들어가 하루 종일 달걀을 품었던 사려처럼 말이죠. 하지만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발명에 대한 이런 고리타분한 인식은 개선돼야 합니다. 발명이야말로 요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교육 도구라는 점을 우리 학부모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발명 진흥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인들이 ‘발명’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발명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저변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핵심 요소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발명이란 ‘괴짜’들이 작은 공간 모여서 하는 그들만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녀들이 장래 희망으로 판·검사나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 반기지만 발명가가 되겠다고 하면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봇 등을 통한 기술융합으로 사람과 사물, 공간이 초연결·초지능화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배출할 수 없다. 발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창의성과 고도의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데 어린 시절에 익힌 발명 습관만큼 좋은 교육은 없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12일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발명교육의 미래’ 좌담회(★9월 16일자 17면)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지면 관계로 실지 못했던 발명교육 관련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장세운 MIDAS연구소 대표 겸 모바일닥터 최고기술경영자(CTO)도 발명교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는 경우다. 현재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장 대표는 초등학교 때부터 특허청의 발명영재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발명교육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1기 과정을 수료했다. 그가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모바일닥터는 엄마들 사이에서 필수 앱으로 통하는 ‘열나요’를 개발한 어린이 대상 헬스케어 전문 서비스 회사다. ‘열나요’는 체온과 해열제 복용, 예방접종 여부 등 아이의 현재 건강상태와 관련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열제를 얼마나 더 먹어야 하는지,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인지 등을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2015년에 출시된 이 앱은 홍보 마케팅 없이 이용자의 추천과 입소문만으로 2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30만건을 넘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시/육아 카테고리에서는 다운로드 수 기준 상위 5위권을 꾸준히 유지할 만큼 ‘육아맘’들의 필수 앱으로 등극했다. 장 대표는 “창업은 발명과 다르지 않다”며 “일상에서 불편함 느끼고 그걸 해결하려는 과정이 발명인데 창업도 결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발명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은 물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체계화된 발명교육으로 큰 혜택을 받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일반대중이 발명이라고 하면 경제력 없는 괴짜 발명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것 같다”며 “지난달 15일 발명교육법도 통과되고 있으니 발명교육을 다른 교육 커리큘럼처럼 일반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0M55BG41F/> 2017.10.3. 기사]

[BEST OF MIK MWC] 모바일닥터, 맞춤형 소아 체온관리 서비스 ‘열나요’ 선택



모바일닥터가 ‘MWC 2018’과 공동 개최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4YFN’에서 스마트벤처캠퍼스 공동관으로 참가, ‘best of mik @ 4YFN’에 선정됐다.

‘best of mik @ 4YFN’는 4YFN에 참가사 중 유망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선정된 각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미국, 중국, 독일 등 외신 기자들과 프레스 피칭을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가 선정하는 Top3의 대상이 된다.

모바일닥터는 맞춤형 소아 체온관리 서비스 ‘열나요’를 선보였다. 부모들은 모바일닥터의 ‘열나요’를 통해 아이들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패치형 또는 블루투스 타입의 체온계를 사용해 체온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체온계가 없다면 수동 입력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열나요’는 체온 입력시 단순한 알람만 주는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다. 체온을 입력되면, 어플리케이션은 의사가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 상황판단 후 알맞는 조언을 한다.

‘열나요’는 35만 사용자들을 통해 300만건 이상의 체온, 증상, 진단명 등의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쌓았다. 최근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질병진단 및 유행 질병 정보 & 지도를 연구 및 제작 중에 있다.

관계자는 “인공지능 질병 진단 키트는 독감진단 분석 서비스 및 간단한 질병을 인공지능으로 체크할 수 있으며 체온계 상품을 결합한 독감진단 키트도 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 정보와 질병유행 지도는 질병의 진단명 정보를 수집해, 진단이 많은 질병의 유행도를 분석하고 그 래프 및 레포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출처: Global News Network 'AVING'/2018.2.27. 기사]

로모델을 묻는 질문에는 “구글을 로모델로 삼고 있다”며 “소화-헬스케어 시장의 구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비전이 ‘Do not be evil’인데 우리의 비전은 아이들이 아플 때 다가가서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것이다”고 전했다. “구글과 같이 기술력, 자금력, 전문성을 활용해 더 좋은 서비스를 늘려가며 헬스케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모바일닥터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모델 파트너사는 어디일까. 아이들 건강과 관련한 모든 보험사와 병원이다. 국가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 버전이 개발된 상태이며 특히 중국의 ‘중의학’에 대응하는 ‘열나요’ 알고리즘도 개발된 상태라고 한다.

기업 지원에 나선 스마트벤처캠퍼스는 앱/웹, 콘텐츠, SW, 융합 분야에서 역량 있는 청년 CEO 및 전문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창업 촉진을 돕기도 하며 창업초기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이번 4YFN에서도 국내 우수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년간 세계 3대 테크 전시회인 CES, MWC, IFA의 이슈를 가장 많이 보도한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 에이빙뉴스는 올해에도 MWC에 특별 취재단을 파견해 전 세계 시장의 주요 이슈를 보도하고 대한민국 주요 기업을 전 세계에 소개한다. 에이빙뉴스는 매해 300~1000건 이상의 해외 전시회 기사를 취재 및 보도하고 있다.

[MWC2018] ‘스타트업 국가대표’ 바르셀로나 찾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8곳

한국 미래 IT 산업을 책임질 스타트업이 MWC 2018에 참여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이하 MWC) 2018는 피라 몬주익에 ‘4YFN(4 Years From Now)’ 전시장을 열었다. 4YFN는 잠재력 있는 전 세계 스타트업을 모아 놓은 전시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주도 아래 국내 스타트업 16곳도 합동 전시관 ‘스마트벤처 캠퍼스(Smart Venture Campus)’를 차려 전 세계 MWC 참가자들에게 아이디어를 홍보했다.

개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 8개를 소개한다.

1. 열나요

어린 아이 체온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앱이다.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탑재된 작은 패드를 아이 몸에 부착해 스마트폰을 접촉시켜 체온을 점검할 수 있다. 열나요는 항상 아이 건강에 노심초사한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얼마나 개발진은 많은 소아 체온을 점검해 지역별로 통계를 내 유행질병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빅데이터로 쌓인 체온 정보를 통해 아이 건강 관리에 유의할 수 있다.

제작사 모바일닥터는 “앞으로 블루투스 패드를 개발해 무선으로도 체온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WIKITREE/ 2018.2.28.기사]

홀트와 함께 보다 깊숙이 꿈을 아로새기다 제11회 아름다운 청소년 하성준 학생

“세상을 놀라게 할 창조적 혁신가, 미리 만나보실래요?”
_ 포항고등학교 2학년 하성준 학생

성준 군은 15세에 혼자 힘으로 3D 프린터를 처음 제작한 이후, 2016년 ‘3D 프린터 활용 경진대회’에 신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키보드로 출전해 경북대 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절단 장애인을 위한 3D프린팅 의수 제작 정보 제공 및 봉사단체인 ‘다섯손가락’과 3D프린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교류하는 ‘대한청소년 3D 프린팅 연합’을 창립했습니다.

수십 번을 요청하고 부탁해 무료로 장소를 대관, 명사 초청 강연이나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이 그저 행복할 뿐.

“의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예전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에 봉사를 다니면서부터예요. 몸이 마비된 아주머니가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 컴퓨터로 타이핑을 자주 하시는데 키보드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의 특정 부분을 몸에 편한 형태로 돌출 혹은 변형시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고, 이 아이디어로 관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까지 거두게 됐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CEO 하성준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는 자신을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CEO 하성준입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한마디가 자신의 꿈과 열정,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오롯이 담아낸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한 세상,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세상으로... 그래서 전 스티브 잡스와 멜론 머스크처럼 사회와 세계에 이로운 영향으로 충격을 가져다주는 창조적 혁신가로서의 CEO가 돼 3D 프린팅과 인공지능 분야를 통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요.”

성준학생은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기술경영과 적정기술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

반 창조적 기업인을 양성하는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 선발돼 2년간 70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그곳 동기들과 초음파를 이용한 LED와 한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점자 프린터를 연구하기도 했으며, 기아자동차 에코다이나믹스 원정대원으로 말레이시아에 방문해 현지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제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요즘 활동을 줄이고 공부에 더 매진해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대회에 지원한 데는 그런 고민도 크게 작용했어요. ‘당장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데 그런 건 대학 가서 하면 어떨겠니?’ 라는 얘기를 들을때마다 저도 조금은 혼란스러웠거든요.아름다운 청소년에 선발됨으로써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보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전 여전히 제가 갈망하는 것을 이룸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그는 꿈 지원금을 활동 중인 모임은 물론 금전적 문제로 중지해야 했던 점자프린터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키보드 개발에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더불어 순수한 의지로 한국전에 참여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께 작은 감사 인사라도 전달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깊은 그는 지금껏 품어온 열정을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천천히 세상에 꺼내 보일 계획입니다. 그러니 모두 지켜봐주세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창조적 혁신가로서의 CEO가 될 하성준이라는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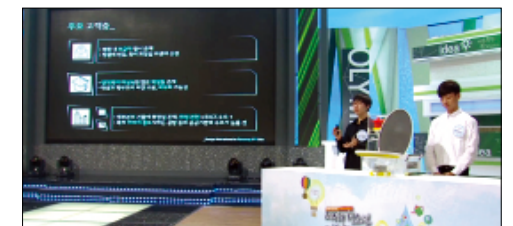
[출처: 홀트복지재단 블로그/ 2017.11.27. 기사]

청소년기술창업 올림픽아드 대상 수상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제3회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픽아드에서 주정환 학생(4기)이 대상을 수상(장학금 300만원)하였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튀는 물 혹은 세균이 위생성 좋지 않다는 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주정환 학생은 이 현상을 해결하고자 공기가 나오는 호스를 설치하여 ‘TACS(에어커튼 좌변기시트)’라는 아이템을 구상하였습니다. 교육원에서 배운 내용, 특히 사업화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빙글빙글회전식 안전콘센트’, ‘초음파 모기퇴치 밴드’와 같은 아이디어들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픽아드 발표 방송1]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픽아드 발표 방송2]

사진출처: KBS

‘테트라 포레스트’ 재활용 자원으로 만든 구조물 디자인

과학고에 다니는 17살 학생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대회에서 상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경북 경산과학고 2학년 손영락 군은 최근 독일에서 열린 ‘2016 iF 디자인어워드’에서 공적가치 부문에서 수상했다. 손군은 ‘테트라 포레스트(Tetraforest)’란 디자인 작품으로 개발도상국의 대기오염과 녹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페트병,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물을 디자인한 것이다. 손군은 작년 몽골에서 MIT D-LAB (매사추세츠공대 적정기술연구소), UNEP(유엔환경계획) 등과 공동 작업을 하고 국내 유명 디자인 공모전에도 참가해 상을 받았다. 손군은 “디자인 공부를 할수록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디자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 2016.2.28. 기사]

경산과학고 손영락 군 대한민국 인재상



경산과학고등학교 손영락(3학년) 군이 24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다.

손 군은 2016년 1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16 iF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Forum DesignAward) 공적가치(Public Value) 부문에서 ‘테트라포레스트(Tetraforest)’란 작품으로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2015 화학탐구 프리엔터 페스티벌에서 ‘진주냉면 레시피 중 달군 쇠막대를 이용해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의 원리’ 탐구로 은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외 우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손 군은 또 교내 동아리 로고 및 홍보용 책자 표지, 대형 포

스터 제작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학교의 발전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손 군은 “인재상 수상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의 갈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생 50명과 대학생 40명, 일반 부문 10명 등 총 100명을 올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 부상을 수여한다. 2001년 처음 수상자를 낸 이후 올해로 16년째다.

[출처: 매일신문/ 2016.11.25. 기사]

잡식성 공부로 승부하다 도서 발간

1기 유용재 학생이 본인의 공부법과 교육원에서 받은 교육의 경험과 우수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도서 발간하였습니다. 그 밖에 2030 소통 대학생 토론회 우수, EBS 장학퀴즈 왕중왕전 1위, 전국 대학(원)생 사회적 경제 논문경진대회 협동조합 질적 연구 부문 대상 등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잡식성 공부로 승부하다 도서]



[잡식성 공부로 승부하다 도서]

‘필히택시’ 내년 상반기 서비스 승객에게 가는 거리 요금 부과



“우버 이길 한국판 콜택시 앱 만들 겁니다.”

한 대학생 자매가 이달 초 콜 요청 거부 문제를 해결할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특허를 받았다. 콜을 받은 택시가 승객을 태우러 가는 동안에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통해서다. 홍서현(21) 홍서우(19) 자매(사진)가 주인공이다.

지난해 1월 도심에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서우씨는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렸다. 길에 택시가 없어 콜택시를 불렀지만 오겠다는 택시가 없었다. 몇 대의 택시가 근처에 있었지만 콜을 받기에는 애매한 거리였다. 결국 그는 30분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택시를 탈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서우씨는 언니 서현씨와 택시의 비효율성에 대해 얘기했다. 콜택시라도 승객과의 거리가 멀 경우 콜 요청을 거부

하는 일이 많았다. 택시기사는 연료비와 근처에서 승님을 태울 확률 등을 고려해 굳이 먼 거리를 가려 하지 않았다. 자매는 궁리 끝에 아이디어를 냈다. 승객을 태우러 가는 길도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법으로 묶인 택시요금 대신 콜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승객을 태우러 가는 길에도 거리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콜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자매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특허를 신청했다. 콜택시 앱 서비스의 이름을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의미로 ‘필히택시’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서우씨는 “콜택시 앱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시기사들은 여러 콜택시 앱을 동시에 사용할 텐데 승객을 태우러 가는 동안도 돈을 주는 필히택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경닷컴 / 2014.11.19. 기사]

‘소녀 적정기술을 탐하다’ 도서 발간

2013 소녀 적정기술을 탐하다 도서 발간
2013 11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2013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연,
2013 Mom대로 키워라 12월 호/월간 샘터11월호 인터뷰 게재

4기 조승연 학생은 입학 당시 적정기술 공학 설계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원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고법과 미래 예측 및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구체적인 관심 분야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0년 된 보잉도 매일 벤처정신으로 운영한다니 놀라워요”

차세대 영재기업인과 세계적 리더의 만남 “저커버그도 학업보다 창업에 열중했죠”
“독일의 지속성장 비결은 벤처기업 육성”

“그래도 창업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김연의 양·중3)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죠.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명의식이예요.”(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7일 글로벌 인재포럼이 열린 서울쉐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 4층에는 35명의 눈이 반짝였다. ‘차세대 영재기업인과 세계적 리더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오찬에는 이스라엘 벤처창업의 선구자인 에를리히 회장, 미국 기술창업지주회사 QB3의 레지스 켈리 회장, 스콧 드라흐 미국 보잉사 인사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해 차세대 영재 기업

인 35명과 창업 경험담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질문과 답을 실 새 없이 주고받았다.

◆진지한 창업 조언 주고받아

오찬 자리는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생인 강수지 양(15)이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고 싶다”고 하자 에를리히 회장은 “어느 나라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목표”라며 “글로벌 기업 또는 학계에서 일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관련 활동을 펼쳐보라”고 조언했다.

드라흐 부사장은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해 가며 24년을 일했다”며 “그런 긴장감이 좋은 결과를 내고 최고의 항공우주 전문기업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온 유병호 군은 “항공전자와 항법연구에 평소 관심이 많았는데 제 꿈의 일터인 보잉사의 드라흐 부사장을 만났더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100년 된 보잉도 매일 새 벤처기업을 이끈다는 초심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처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136호
전화 054-279-8253
디자인 GDSK
펴낸곳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사업지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ceo.postech.ac.kr

© 2018 포항공과대학교 영재기업인교육원 수기집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